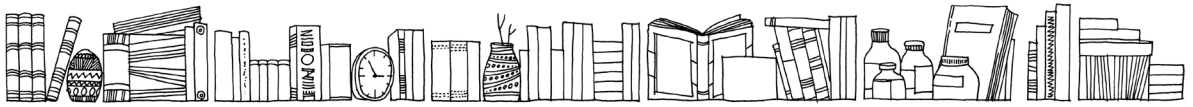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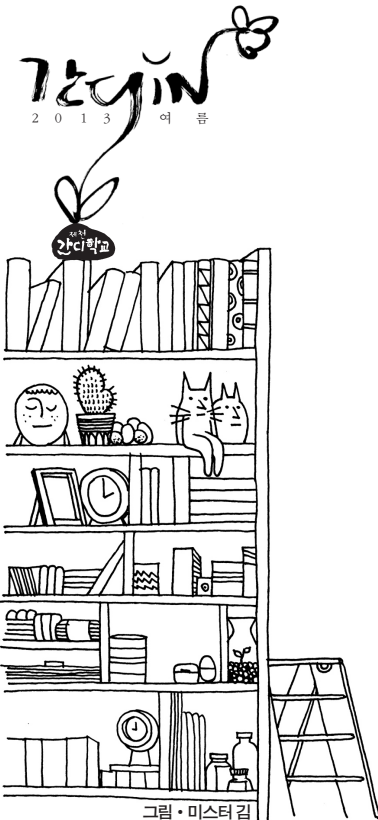


봄을 다 즐기기도 전에 제멋대로 여름이 되어 버린 듯한 날씨 덕에 이번 대동제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이제는 대동제 행사 중 빼놓을 수 없게 된 트럭쇼! 역시 간디인답게 무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운동장 한가운에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한창 찌는 오후에도 역시 노래할 때만큼은 다들 즐겁습니다. 덥다고 에어컨 바람 맞으며 앉아 있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즐기며 더위를 이겨 낸다면 이번 여름도 재미나게 흘러가겠지요?!

장우정 사진기자(3학년)



차 례



여는 글	2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여름입니다
특집	4	제천간디의 건축학개론 제2화: 고등교육관의 위기
	7	'움직이는 학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간디인 특특	21	단식 지지 간디인의 한 마디: 밥보다 소중한 것
	25	성교육 이야기 2: 태아에서 첫돌까지
	33	잊으려 하였지만 잊어서는 안 돼
반가워요 후원인	35	마음만은 최연소! 김혜영 후원인
간디IN이 만난 사람	38	간디에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배움 속으로	42	작업장: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한 일터
우리끼리	46	입이 심심한 점심시간엔? 학교 매점, 간티크!
사실	51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
간디IN의 짧은 소식	56	
기자 후기	63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여름입니다

유현영 기자(5학년)

4월까지도 아직 겨울인 것처럼 시리고 찬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햇빛이 살풋 내리쬐고 나비가 날아다니며 이제 봄인가 싶었는데, 이번엔 별안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팔목 끝까지 뽀뽀 감싸고 다니던 팔을 갑자기 공기 밖에 그대로 내놓으려니 더운 바람에도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 짧은 봄이 은연중에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매년 일상다반사의 《간디IN》 여름 호 준비는 6월에 있을 움직이는 학교 준비와 더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게다가 1학기 수업 종강 주간까지 겹치니... 하지만 일상다반사 기자들은 간디학교의 여름 소식을 모두 담아 내기 위해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이번 호에 처음으로 함께 기사를 쓰게 된 이한솔 기자, 그리고 일상다반사의 만년 서기 손채은 기자는 무빙 기사에 실을 학년별 청탁 글을 맡아 한시름 놓았지만, 대신 최소는 기자는 무빙 장소가 학기말이 다 되어야 정해지는 5학년까지 학년별로 청탁에, 기사 전체 구성을 맡아 하느라 지난 호만큼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이번 호부터 기사를 쓰게 된 이예슬

기자는 ‘간디IN이 만난 사람’ 쪽지를 맡아 학교에 새로 오신 희라 쌤과 수진 쌤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푹 부러진 ‘척’하던 이예슬 기자는 결국 허당 기질을 발휘해 문서로 타이핑도 해 놓기 전에 녹취록을 흘랑 날려먹어 쌤들과 두 번씩이나 만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책임감 가지고 기사를 완성시켜 준 이예슬 기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호에 권태기를 맞아 힘들어 했던 김은수 기자는 이제는 다시 열의를 되찾아 우리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최연소, 최연장 후원인을 만나 특별한 기사를 써 볼 야심 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연소 후원인 김송새봄 양의 바쁜 스케줄과 요양원에 계신 최연장 후원인의 사정으로 결국 최연소 후원인 인터뷰는 포기하고 그 다음 최연장 후원인을 찾아보니 놀랍게도 5학년 김종화 군의 할머니였습니다. 덕분에 김은수 기자와 안효원 사진 기자는 예천까지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출장 취재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기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학년들이 움직이는 학교를 다녀오고 즐거운

여름 방학을 맞는 그 시간 동안 4학년은 필리핀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이동식 해외 체험학습을 떠나죠. 일상다반사에도 4학년 기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호까지 편집장을 맡아 준 조하한 기자와 이번 호 ‘간디인 톡톡’ 쪽지를 맡아 준 한 별 기자입니다. 조하한 기자는 에너지 문제라는 어려운 주제로 그 짧은 마감 기간 동안 살림터에 계신 영민 쌤과 만나 공부도 하고 설문지도 돌리는 등, 열심히 알찬 기사를 써 주었습니다. 필리핀 준비만 해도 굉장히 바빴을 텐데 여름 호 소식지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준 두 기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한 번밖에 없을 이번 평화여행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많들고 많이 배우고 오길 바랍니다.

지난 호에서 한 별 기자와 함께 고등교육관 건축에 대한 특집 기사를 써 준 김민석 기자는 이번엔 혼자서 장기 특집 기사에 도전했습니다. 범적인 문제로 인해 잠시 중단된 고등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기 위해 여러 쌤들과 고민하고 알아보아 혼자서도 두 명의 기자가 하는 것만큼의 기량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일상다반사’에 들어온 이후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 · 김고운(4학년)

취재에 임하며 많이 성장해 준 김민석 기자,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가원 기자는 이탈리아로의 도주 이후 더욱 풍부해진 감성으로 ‘간쫘소’의 캘린더와 삽화 수집을 맡아 주었습니다. 소식지 전체의 삽화를 맡아 하려다 보니 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갑자기 영역을 넓혀 가는 눈 밑 다크서클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간디학교에서는 계절이 너무나 빠르게 흐릅니다. 여름날엔 덥다고 짜증을 내다가도 어느새 뺏속까지 떨리는 추위의 겨울에 심통을 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싫지 않은 이유는 간디 가족이 함께 배우기 위해, 함께 자라기 위해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은 짹짹 들어찬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바쁘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마루에서 선풍기 틀어 놓고 느긋하게 모든 시간들을 천천히 느끼며 휴식을 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수박 한 입에 《간디IN》 여름 호까지 곁들여서 말이지요. 🍉



제천간디의 건축학개론 제2화 : 고등교육관의 위기

김민석 기자(2학년)

지금 한창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어야 할 고등교육관의 분위기가 뜨거운 여름의 열기와는 다르게 한겨울처럼 싸늘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등교육관 건축이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봄 호 기사에서는 순조롭게 고등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봄 호 기사에서처럼 순조롭게 고등교육관 건축이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고등교육관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잠정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쯤 완공을 예상했지만 미뤄졌고, 1학기에는 아예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사 진행 상황을 소개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고등교육관 건축이 잠정중단된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교육관 건축 위원회에서는 학교 공간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부의 안정된 학습 공간이 보장되지 않아 고등교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위원회는 고등교육관을 지을 땅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밖에 있는 땅을 알아보다가 마땅히 좋은 곳이 없어 학교 관사가 있는 자리에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그 땅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이상이 없어야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땅에는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고등교육관이 올라갈 땅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건축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관이 지어질 땅에 해결해야 될 법적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등교육관을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건축 위원회는 법적 문제가 어떤 건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충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다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이 문제가 정리가 된 후에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만나 상담 중입니다. 그 절차가 시간이 오래



4월 27일 오전에 고등교육관이 올라갈 자리에 있던 컨테이너 두 개를 옮겼습니다.

컨테이너 옮긴 후
(관사 옆에 있던 컨테이너, 간디버스 옆으로 이동)

걸리는 작업이어서 건축 위원회도 난감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법적 문제로 바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봄 호 기사에서 고등교육관을 지을 자금이 모자라 걱정이라는 건축 위원회 얘기를 소개했었는데, 현재 학교에서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생님과 부모님들,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축 위원회에 계신 김태진 선생님은 여태껏 그린 작품 20여 점을, 또 01학번의 김도솔 졸업생의 학부모님이신 김 익 관화가님은 판화 11점을 기부해 주셔서 일부 재료를 제외한 판매 수익을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으로 내주셨습니다(현재 6점이 팔림. 6월 15일까지 판매함.). 그리고 이번

대동제 때 학생들이 건축기금 마련에 참여해 고등부 작업장과 동아리, 2학년 학급에서도 대동제 부스에서 나온 판매 수익의 일부를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에 마련했고, 각 학년 학부모님들이 부스를 차리셔서 번 돈을 모두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으로 내주셔서 고등교육관 건축기금은 총 5,952,310원이 모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이 꺼지지 않는다면 고등교육관 건축도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적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고 고등교육관을 짓기 위해 여러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관은 1학기에는 공사가 불가능



1학년 학부모님들이 부스 활동으로
음식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 대동제 건축기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부스 활동을
했습니다. 사진은 2학년 학생들이
부스 활동으로 페이스 페인팅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빠르면 2학기에는 완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일이 해결되어 2학기에는 건물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호 기사도 예상치 못한 일로 새로운 방향으로 쓰게 되었는데, 다음 기사에는 무슨 내용을 들고 올지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저조차도 다음에 고등교육관에서 무슨 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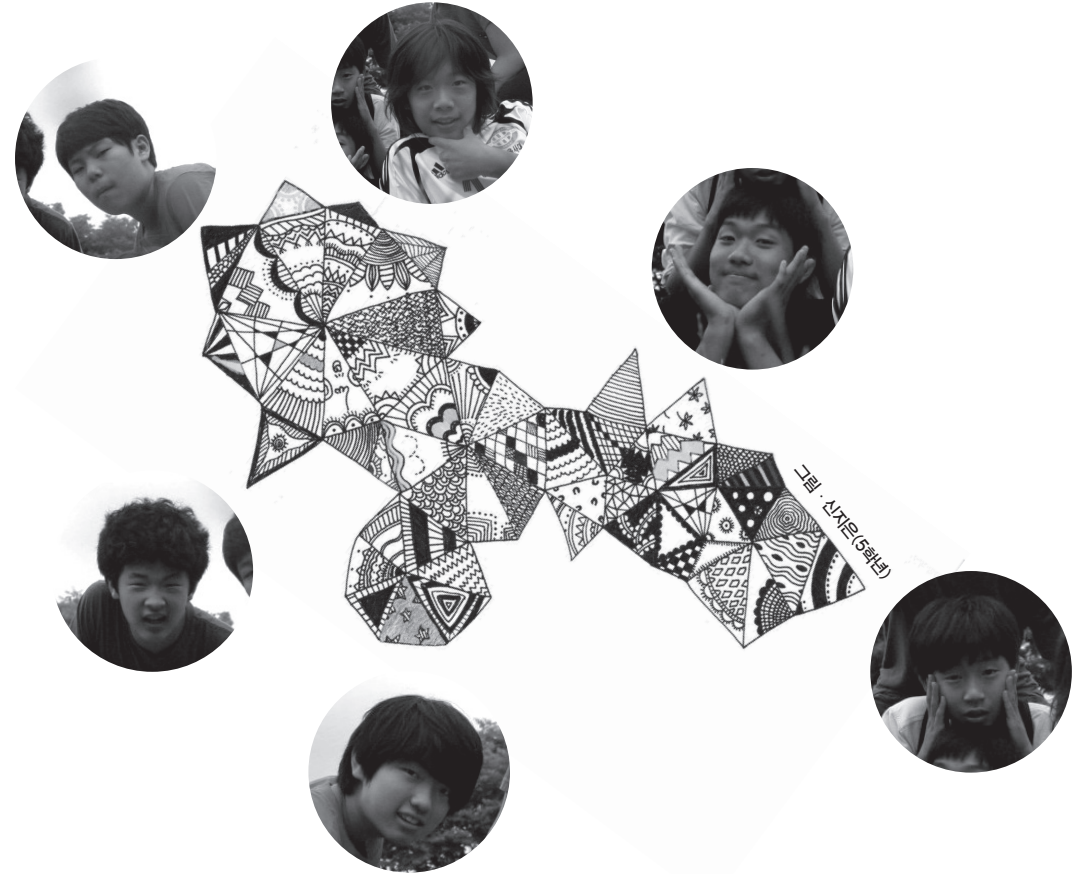
일어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고등교육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움직이는 학교’,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최소은 기자(5학년)



제천간디학교에는 매월 6월이 되면 찾아오는 큰 교육과정이 있는데, 바로 움직이는 학교입니다. 이 ‘무빙 스쿨’을 즐겨 흔히 ‘무빙’이라고 부르죠. 중등은 학년별로, 고등은 개인별로 준비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대개 1학년은 학교에서 풍물을, 2학년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노뜰’이라는 연극 단체와 함께 연극을, 3학년은 제주도를 다녀온 후 타 대안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아! 그리고 고등부 이번 연도부터 ‘움직이는 학교’는 5학년만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학년, 5학년 전 고등부가 모두 다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4학년이 같은 시기에 필리핀 이동식 해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움직이는 학교를 엿보러 가 봅시다~

* '움직이는 학교'는?

움직이는 학교에는 '배움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학교만이 아닌 학교 밖에서 배움을 찾는다.'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체험학습이 아닌 학교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핵심인 주제 프로젝트와 연관이 된다고 해요.

'움직이는 학교' 설명글 보충해 주세요.

중등 1학년

1학년의 대주제는 '간디에서 동지 되기'인데, 움직이는 학교에서는 풍물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사실 꼭 풍물이라기보다 공동의 하모니를 만들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주에 있는 '울림'이라는 단체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 단체에서 풍물 외에 켈레 같은 다른 레퍼토리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악기보다 전체가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갔었던 장성이나 장흥보다 학교가 더 적합하다고 느껴서 지금은 학교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좋을 수는 없는 법!!

정환 쌤은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생활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힘들고, 또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니까 그런 점이 힘들지. 좋은 점은 이동이 없고 지역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호흡을 맞추는 것이지. 우리 공간이다 보니까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또 학교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다가

주변 개울이나 이런 곳에 나가니까 좋더라."라고 하시네요.

그럼, 직접 무빙을 마치고 돌아온 1학년의 따끈따끈한 글을 한 번 볼까요?

첫 무빙, 잊지 못할 경험

이한솔(1학년)

5월 30일. 무빙이 시작되었다. 충주 터미널에서 만나 2박 3일 동안 충주와 단양 자연휴양림에서 지내는 것이 무빙의 시작이었다.

충주와 단양에서 보낸 2박 3일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직접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는 것.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힘들었던 견협동심이었다. 어떤 음식을 만들지, 어떤 재료를 사야 할지... 게다가 단양에서는 만들기로 한 음식을 갑자기 바꿔 버리는 일이 생겨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음식 하나는 정말 맛있게 잘 만들어 식사 시간만큼은

훈훈하고 좋았다.

재밌었던 2박 3일의 생활을 끝마치고 간 곳은 학교였다. 우리는 간식을 먹고 소강당에서 간담회를 했다. 서로 쌓인 점, 바라는 점, 미안한 점 등을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웬지 모르게 간담회 이후로 더 어색해진 애들도 있었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무빙에 들어갔다. 우린 산야초 캐기(등산), 모내기, 덕산지역 알아보기, 미륵리사지 둘러보고 하늘재 걷기, 그리고 도예를 했다. 나는 이 중에서 도예가 제일 재미있었다. 도예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거였고, 게다가 우리 반 벽에 우리가 만든 타일을 깔고, 그 벽이 오래 갈 생각을 하니깐 웬지 모를 자부심이 생겼다. 타일 만드는 것도 재미있었고, 색이 예쁘게 잘 들어가서 좋았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산야초 캐기였다. 산야초 캐기는 정말 등산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캐라는 산야초는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고... 힘들었지만 등산이 끝나고 광천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해서 좋았다.

힘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던 일주일의 뒤로 하고 남은 일주일의 시간은 풍물로 잡혀 있었다. 무빙의 하이라이트인 만큼 모든 시간이 풍물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덕산장터에서 공연은 하지 않고, 발표회만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런지 부담감은 줄어들었지만, 일주일의 시간으로 선반과 앉은반을 둘 다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회의를 했다. 처음엔 그게 뭘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앉은반에서 할 곡을 우리가 만들기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회의를 한 것이었다.

그렇게 어떤 내용으로 할지 정하고 나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악기를 만져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저녁때 치열했던 악기 선정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서 장구 겸 썰매를 맡았다.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피아노처럼 악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샹이 하시는 걸 직접 듣고 따라해야 해서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도 매일 같은 연습으로 겨우겨우 앉은반은 완성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선반. 악기 선정할 때 가위바위보를 해서 썰매를 했지만, 쉽잖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작에, 장단까지 너무 어려웠다. 게다가 상쇠를 맡게 돼서 더 부담감이 컸다. 장단을 맺는 리듬까지 다 외워야 되고 순서에 박자까지... 그래서 발표 하루 전날에 엄청 연습해서 겨우겨우 선반을 완성시켰는데, 계속 같은 곳에서 실수가 났다. 과연

선반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발표회 때는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했다. 선반과 앉은반을 끝냈을 때의 그 뿌듯함,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발표회가 끝나고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학년 MT를 갔다. 밤늦은 시간, 우린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간식으로 과자와 치킨을 먹고 신나게 놀았다. 몇 명은 졸린 나머지 뺨아서 잤지만, 나는 끝까지 남아 무빙의 마지막 밤을 즐거움으로 마쳤다.

그렇게 우리 1학년의 무빙이 끝이 났다. 직접 겪어 볼 땐 24시간, 정말 길었다. 하지만 무빙이 끝난 지금. 시간은 정말 짧았다. 충주 터미널에서 만난 지가 바로 잊그제 같았는데, 벌써 무빙이 끝나다니... 단 하루라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힘들기도, 즐겁기도 했던 나의 생애 첫 무빙,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중등 2학년

2학년의 대주제는 '너와 나에 대한 이해', 2학년들은 연극을 하러 갑니다.

연극이라는 그 동안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 반 아이들에게서 보지 못한 부분도 볼 수 있고, 호흡도 맞춰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틀이라는 단체가 다른 연극 단체처럼 아이들에게 연극 단체에서 만든 연극을 그대로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연극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정환 쌤은, "2학년은 사춘기가 폭발하는 힘든 시기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 그리고 감정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게 사건으로 나타나.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지. 그래도 단기간에 아이들이 연극이라는 새로운 것을 통해 자기 것을 만들어 가는 게 좋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연극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고 왔을 우리 2학년들의 느낌도 안 들어 볼 순 없겠죠?

잊지 못할 카타르시스

박지담(2학년)

2학년은 올해 노틀과 참꽃 작은 학교, 동해를 갔다. 먼저 우린 6월 3일 노틀에 갔다. 약 2주의 노틀 생활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나는 민석이와 상윤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3시까지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훨씬 빨리 들어가 12시 40분쯤에 들어갔다. 노틀 쌤들만 있고 친구, 학교 쌤들도 없이 셋만 있었다. 일단 우린 짐을 풀고 너무 더워서 백수처럼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교 쌤들은 2시간쯤 지나서 들어오셨다. 2학년 무빙 기간을 함께 해주실 네 분의 쌤들은 중명 쌤, 민혜 쌤, 미리강, 태진 쌤이시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이라 불편했다.

다음날 6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8일 토요일까지는



일정이 똑같다. 요가, 셀위댄스, 놀이와 즉흥극, 그룹별 연극 장면 만들기를 차례대로 했다. 5일 동안 똑같은 것만 하니까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6월 7일에 풋볼 데이트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 시작하기 전에 비가 살짝 왔었는데 차질은 없었다. 걷다가 풋볼이 꺼졌는데 오히려 풍경이 더 잘 보였다. 풋볼에 집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고속도로 풍경이 너무 예뻐다. 그리고 6월 8일. 이날 요가가 끝났을 때 아쉬웠다. 몇몇 애들은 요가가 끝나서 좋다고 하지만 난 아니다.

6월 9일 일요일. 자유 시간이다. 원주 시내에 나가 놀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 전날 연극 만들기를 할 때 욕을 먹어서 연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약 5시간을 연습하고 문막읍에 나가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놀다 들어왔다.

다음날 6월 10일 월요일. 이날은 오전에 fun site specific이라는 것을 했다. 새로운 수업인데 즉흥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것이다. 예로, 복도에서 지하철을 떠올리게 연출하는 것이다. 오후에는 Dance와 연극 만들기를 계속했다. 다음날 fun site specific을 하고 발표회 때 올라갈 연극 팀을 최종으로 발표를 하는 날이 왔다. 결국은 3팀 모두 올라갔다.

오후에 드디어 고대하던 랩 수업을 했다. '세 남자'가 와서 알려 주었는데 내토 없이 술래와 빅사이즈만 왔다. 수업을 듣고 수업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랩으로 랩 배틀을 했다. 아이들의 랩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다. 그렇게 랩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고 '세 남자'의 특별 콘서트가 열렸다. 일단 공연의 포문을 '노래하는 술가'가 열어 주었다. 그리고 '세 남자'가 공연을 했다. 우린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날뛰었다. '세 남자'는 우리처럼 날뛰는

학년은 처음 봤다고 한다. 마지막 곡할 무렵쯤 무대로 들어가 뛰었다. 공연이 끝난 후 같이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 즉석 랩을 해서 '세 남자'의 CD도 받았다. 지금 잘 소장중이다.

6월 12일도 그럭저럭 지나가고 6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무대와 객석, 조명이 설치되었다. 진정한 무대가 탄생이 되는 거였다. 나도 거들었다. 그리고 뒤에 칠판에 낙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낙서를 남기고 왔다.

6월 14일 금요일은 춤을 다듬고 연극도 다듬고 저녁을 먹고 리허설을 했다. 그리고 대망의 6월 15일 토요일. 발표하는 날이다. 하루 종일 리허설을 했다. 점심도 1시간 늦게 먹고 저녁도 주먹밥만 먹고 무대 뒤로 들어가 부모님관객을 기다렸다. 그리고 약 1시간 30분 동안의 공연이 순식간에 휙 지나갔다. 우리는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다



나가자 무대에서 뛰었다. 공연이 끝나서 그런지 후련했다. 또 우린 공연 전 리허설 때 지현 샘에게 욕도 조금 먹어서 긴장감이 더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주시는 늦은 저녁은 거창했다. 그렇게 토요일도 지나갔다.

다음날은 참꽃 작은 학교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아이들은 노뜰 샘들과 정이 들었는지 많이 울었다. 난 울지 않았지만 말이다. 원주 시내에서 영화도 보고 미션도 하고 도착했다. 참꽃 작은 학교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에 집에 가서 월요일 12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에는 학생들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이였다.

6월 17일 월요일에는 학생들과 문화 교류를 하는데 잘 된 것 같지 않다. 우리가 하는 그 뜯끼짓을 거기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도 많이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도이다. 우리는 한 6명 정도가 참여했다. 근데 그 형들이 너무 잘해서 쉽게 안

끝났다. 그래서 참꽃 샘의 중재로 겨우 끝났다. 6월 18일 화요일에는 동해로 MT를 가는 날이다.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왔다.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바다에서 물놀이를 했다. 추웠지만 했다. 그리고 밤에 마지막 저녁 모임을 하고 민혜 샘 생일 파티를 해 드렸다. 노뜰에서 해 드렸지만 우리가 바빠 제대로 못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해서 한 번 더 해드린 것이다. 그렇게 무빙 마지막 날도 지났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 봐야 되는 애들은 먼저 가고, 마지막으로 물놀이를 20분 정도 하고 무빙의 피로를 가지고 서로 헤어졌다.

이번 무빙은 너무 재미있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지현 샘의 말씀으로는 카타르시스인가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도 느낀 것 같고 너무 재밌었다. 잊지 못할 2주 반이 될 것 같다.



중등 3학년

3학년의 대주제는 세상 바라보기!!

어떤 세상의 여러 모습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몸으로 직접 겪어 보고 느끼고자 합니다. 4·3 사건이 단순 지역 사건이 아닌 역사적 사건임을 그 공간에서 몸으로 배울 수 있고,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 국가 권력의 폭력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프로그램인 대안학교 체험은 3년 동안 학교에서 대안교육이 무엇인지 어떤지를 고민해 왔다면 다른 대안학교에 가 봄으로써 비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이라고 해요. 하지만 제주도라는 특성상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따라 주지 않으면 힘든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주도는 다양한 활동과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해요.

제주도에서 이리저리 다니라, 다른 대안학교 체험하라 바빴던 3학년들, 다녀와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한 번 들어 봅시다~

안녕하수파?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손채은 기자(3학년)

드디어 나의 마지막 단체 무빙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무빙이라고 해서 초반에 막 기대한다거나 두렵다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진행된다면 진행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떠난 제주도! 우리는 21명의 신호 위반(반 이름)과 수자 샘, 수진 샘, 필 샘 모두 합해 24명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첫날, 나는 오전 6시에 겨우겨우 잠에서 일어났다. 날씨도 괜찮고, 딱 여행가기 좋을 날이었다. 주섬주섬 내 덩치만한 등산배낭을 메고 애들과 만나기로 한 광주 버스터미널로 향하였다. 약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광주 터미널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박에 우리 반과 만날 수 있었다. 광주에서 3일 만에 보는 우리 반과 함께

우도로 향했는데, 초반에는 시끌시끌해서 기사님의 쓴소리도 듣기도 했지만 곧 새근새근 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우도에 도착한 우리는 한일카훼리1호(배 이름)를 타고서 제주도로 향하였다. 총 3시간 30분 동안 우리는 배 안에서 놀았는데, 초반에는 갑판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바람도 쐬며 놀다가 지쳐 돌아와 잠들어 버렸다. 일어나니 어느새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배에서 내렸지만 내가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직도 서울인 것 같고, 아직도 집인 것만 같았다. 그날은 절물휴양림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제주도 일정은 크게 올레길 걷기, 봉사, 한라산 등반, 함덕 해수욕장, 꽃자왈 걷기, 문화재 탐방 등이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은 봉사와 함덕 해수욕장이었다.

봉사는 내게 있어 첫 봉사였다. 누군가를 도와

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해 보는 것이었다. '제주장애인요양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낮이 두꺼운 것도, 짹짹함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쭈뼛쭈뼛 들어섰다. 여자애들 몇 명이서 여자 장애인 방을 들어갔는데, 거기엔 대부분 우리 나이 또래 혹은 아기들이 있는 방이었다.(물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도 있었다.)

우리는 청소, 빨래 널기, 식사 수발 등등 여러 일을 도왔고, 옆에서 같이 말을 나눈다거나 손을 잡아 준다거나 교감을 나누는 등 여러 일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았다.

그날은 음악치료가 있는 날이라서 함께 노래도 부르며 놀았는데, 나는 그 자리가 약간 불편할 뿐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봉사가 끝나고 나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좋았기 보다는 의외였다. 오히려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봉사가 무조건 힘들거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끝나치면서 거기 담당자분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 인사가 무척이나 뿌듯했다. 처음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인상이 아니라 좋은 인상으로 자리 잡혀 좋게 끝나게 되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함덕 해수욕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바다가 에메랄드 빛깔이라서 얼른 빠져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모이자 다들 신이 난 듯 퐁퐁퐁 바다에 빠졌고, 초반에는 차가운 바닷물인 것 같았지만 애들과 함께 물을 튀기며 놀자 곧 적응이 되어 하나도 춥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자애들을 물 속 깊숙이 넣어 버렸고, 비교적 힘이 약한 여자애들은 그저 남자애들의 손길에 따라 빠져 버렸다. 덕분에 나도 소금물을 한 가득 먹기도, 돌에 무릎이 찍혀서 피가 나기도 하였다. 아무리 다쳐도 놀고 싶다는 욕심에 아프다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놀았고 잠깐 쉬기 위해 나오자 그제서야 아파 왔다.

물 밖으로 나온 우리는 샘들이 해 주신 쪽이 들어간 라면, 떡 등을 맛있게 먹고서 한 차례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자애들은 탑을 쌓기도 서로에게 기대서 사진을 찍기도 하며 모래찜질도 하였다.

아직은 가기가 아쉽다고 생각이 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물에 빠져들었고 남자애들 여럿이 한 명, 한 명의 여자애들을 들어 물에 빠뜨려 버렸다. 그 때마다 여자애들은 발버둥을 치며 싫다고 했지만 남자애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쩍...).

3년 동안의 시간 중에서 우리 반과 함께 가장 신나게 논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배를 타고 우도로 향하였는데, 올 때와는 다르게 갑판에서 놀기는커녕 앉자마자 잠에 빠져서 배가 도착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무빙은 내 3년 무빙 중에 가장 재밌었던 무빙이었고, 그만큼 우리 반과 더 친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이렇게 신나게 여행을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고등부

지금까지는 중등부만의 움직이는 학교를 소개했다면, 이제는 고등부만의 움직이는 학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고등부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학교를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자신이 가고 싶은 단체를 찾는다(인터넷이나, 친구 혹은 쌤의 추천 등의 방법으로 단체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처음부터 힘들어 하는 친구들도 많다.)

*주의할 점-단체가 사회성과 공공성을 띠는지, 체험과 배움이 골고루 이루어지는지 등을 고려한다.

2. 그 단체에 전화나 메일로 연락해서 자신이 그 단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여쭙어 본다. (보통 이 과정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 한다. 단체에 연락을 하더라도 확답을 늦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연락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할 구체적인 활동이나 활동 기간 등을 정한다.

(예-주말을 뺀 평일에 해서 3주를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

*지켜야 할 점-하루 8시간씩 15일을 해야 하고, '유노동 무임금'을 지킨다.

4. 그 다음, 움직이는 학교 계획서를 써서 발표한다.

5.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로 돌아와 움직이는 학교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도 한다.



움직이는 학교 계획서 발표를 할 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 조금씩 늦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가정학습 전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각자가 선정한 단체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학교 단체를 선정하는 분위기도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5학년인 09학번들의 작년과 이번 연도의 움직이는 학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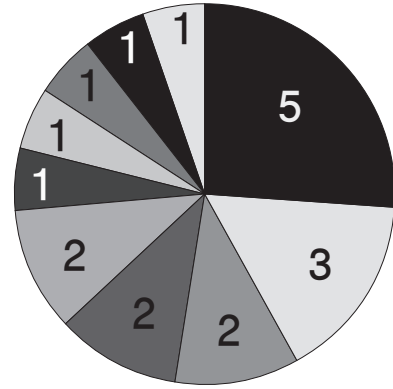
그래프(18, 19쪽)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작년에는 교육 분야로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나갔으며, 작년보다 봉사 분야 비중도 커졌습니다.

보통 작년과 다른 분야로 가거나 비슷한 분야이지만 단체를 다른 곳으로 가 봅니다. 또는 작년에 친구나 선배가 갔었던 분야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움직이는 학교를 선정하고 열심히 활동하다 온 마지막 5학년의 마지막 무빙 한 마디도 들어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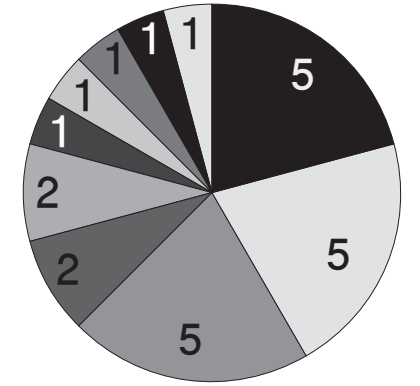
2012년도 움직이는 학교(총 19명)

이름	단체 이름	단체 분야
김상연	등대생협	협동조합
김수용	대한기술센터	환경
김종화	슬로비	사회적 기업
김진규	인디팬	문화
김한솔	아름다운가게	봉사
김현정	극단 걸판	극단
김혜린	진주미디어센터	사회적기업
나현준	제주강정마을	평화운동
남궁홍	꿈터	지역아동센터
박록리	푸른학교	지역아동센터
박수열	고양자유학교-중등	중등대안교육
신지은	care의 동물보호소	봉사
오지영	장자번덕	극단
유현영	서교예술실험센터	문화
이민지	열리는 어린이집	공동육아 어린이집
장기중	한발레츠	대안화폐
전수정	달콤한 꼬끼리	사회적 기업
최민현	누리 빵카페	카페
최소은	고양자유학교	초등대안교육



2013년도 움직이는 학교(총 20명)

이름	단체 이름	단체 분야
김상연	아이쿱 생협	협동조합
김수용	녹색소비자연대	환경
김종화	슬로농장	영농조합
김진규	대안기술센터	환경
김한솔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
김현정	조선그루브	사회적 기업
김혜린	떡찌니	사회적 기업
나현준	진주의료원	노동운동
남궁홍	버리학교	초등대안교육
박록리	행복나눔플러스	사회적 기업
박수열	아름다운가게	봉사
신지은	민들레 국수집	사회적 기업
오지영	답십리 유기견 케어센터	봉사
유현영	복합문화공간293	문화
이민지	두레생협	협동조합
장기중	청소년 드림인 센터	사회복지
전수정	산새	사회적 기업
최민현	한발레츠	사회적 기업
최소은	주사랑 공동체의 집	봉사
홍지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사회단체



도심 속 농촌 청년으로 살다

김수용(5학년)

가고 싶은 단체를 찾느라 고민하고 있을 때, 미리 샘이 “관심 있는 주제는 살면서 평생 하게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관심 없던 일을 배워 보면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하게 ‘난 그렇게 가면 보름 동안 후회만 할 것 같다’였다. 그래서 결국 논문 쓸 때부터 조금씩 관심이 있었던 환경이나 자연으로 주제를 잡았고, 어쩌다 보니 ‘녹색소비자연대’를 다녀오게 되었다. 작년엔 대안기술센터에 갔었는데, 주제는 올해와 비슷했다. 작년엔 특히 몸 쓰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배워 볼까 생각하고 가게 되었던 곳이 녹색소비자연대였는데, 하는 일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대구 시내 북판으로 출근했지만 농사를 짓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농사가 싫다거나 하는 말은 절대 아니다. 다만, 느꼈던 것은 어쨌든 자연을 지키려 한다면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농사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팔공산 주위에 사람들이 걷기 좋게 길을 만들고 홍보하는 ‘대구올레’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직접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시와 농촌’이 그 사업이다. 탈핵

같은 에너지 부문도 ‘도시와 농촌’ 팀에서 맡고 있어서, 난 ‘도시와 농촌’ 팀에 배속되었다. 역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주제는 ‘도시와 농촌’ 팀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덕분에 매주 화요일마다 대구 시내인 동성로에서 탈핵시위도 했고, 어떻게 하면 후손들 보기에 좀 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농사를 자주 지었고, 부수적으로 탈핵시위라든지 다른 활동에 참여했다. 내가 이번 무빙 때 농사를 좋아했던 이유는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분들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잡초를 뽑는다’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으니까.

반면, 사무실로 출근하면 내가 할 일이 마땅히 없었다. 겨우 보름 있으면서 행사를 기획한다거나 돈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태까지 7인분의 일을 7명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한 명 더 늘었다고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날에는 껴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그분들의 난처함도 백 번 이해가 간다. ‘도시와 농촌’ 팀의 류경원 팀장님이 내 멘토였다. 팀장님은 ‘그린집’이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조금씩 돈을 내어 사는 집 공동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얘기는 그린집에선 휴지를 안 쓴단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단식 지지 간디인의 한 마디 : 밥보다 소중한 것

한 별 기자(4학년)

가정학습을 다녀온 4월, 남자기숙사에서는 1학년 주역이의 돈 1만 원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남학생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도난 사건을 범인이 나올 때까지 점심·간식 단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고등부 남학생들의 단식을 지지한다며 자신도 점심 또는 간식을 먹지 않겠다는 간디인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단식 지지는 처음엔 샘들을 시작으로 종이에 적혀 현관 거울에 몇 장 붙더니 이내 거울을 덮어 나갔습니다.

교장 샘부터 새내기 1학년들까지 간디의 도난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으로 단식에 동참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훈훈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던 고등부 남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간디인들이 점심 시간마다 식당 복도에 서서 피켓팅을 하고 회의를 하던 어느 날, 돈을 가져간 사람이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0일간의 단식 끝에 고등부 남학생들과 단식에 동참한 여러 간디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점심과 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싸우느라, 밤늦도록 회의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서로를 믿고 지지해 나갔던 이번 일을 통해 간디인의 몸과 마음도 부쩍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 단식을 지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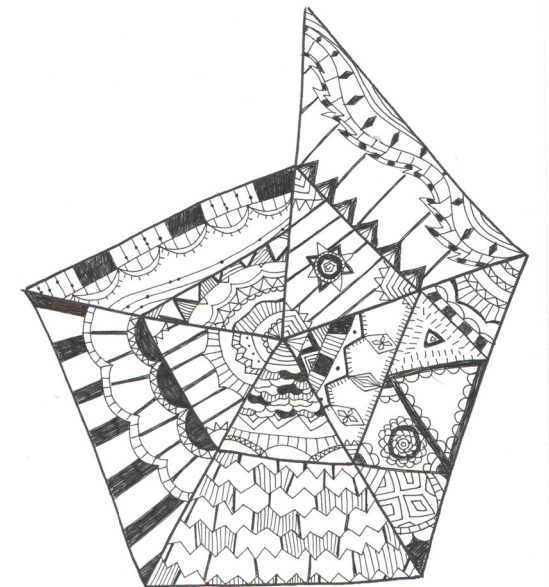
우어진은 오늘부터 점심·간식·사제 간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물론 야식도요.

고등부 선배들을 지지합니다.

단식 지지 남자 고등부의 단식을 지지하고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점심·간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용기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소윤·김고운

■ 저희 김푸른하늘·김한새는 이번 남자 기숙사 도난 사건을 홈스테이라고 방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한새는 점심을, 푸하는 점심과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디학교 사람들의 노력을



그림·신지은(5학년)



사람들이라면 다들 화장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나 역시 궁금해서 물었더니 “잘 생각해 봐^^”가 답이었다. 어쩌면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소비를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참 타이밍 좋게 잘 다녀온 것 같다. 딱 농번기에 걸처서. 밭이 멀어서 일찍 일어나야 할 땐 좀 힘들기도 했었지만, 작년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무빙이었다.

무빙이란 게 여러 가지로 애매하다. 보름이라는 기간은 짧은데 길다. 모순 같아 보이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음에 있어서도 신기한 건, 무빙을 계획하는 단계에선 짜증도 나고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러나 다녀와서 생각해 보면 올해부터 4학년 때 무빙이

사라졌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 물론 나는 작년에 지났기 때문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은 아니지만, 참 좋은 기회에 사라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한 번으로 줄어든 만큼 내년 무빙도 필리핀만큼 열심히 다녀오길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움직이는 학교라는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보고 범인이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 푸하 · 한새

■오늘부터 김태우 · 송륜근 · 김상현은 점심을 먹지 않겠습니다. 적극 지지하며 고백 바랍니다.

■범인이 빨리 나와서 고백을 해 준다면 용서할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대단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고등부 형들 단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중에서도 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서로 믿으며 살고, 범인은 자수해 주세요. 주열이도 용서할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고등부가 단식을 하면 마음 안 아릅니까?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빨리 나와 주세요.

- Jimin kim

■고백할 수 있을 때 용기 내어 얼렁 고백해 주세요!! 단식 동참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은아, 기순, 진욱(=주방 쌤)

■3학년 한승희, 김성혁은 고등부 지지와 함께 점심 단식을 하겠습니다. 고백해 주세요...!!!!

■고등부 남학생 단식 지지. 그 분을 사랑합니다. 평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모두 힘내요.

-손진근

■제 방문의 자유를 그리며...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건이, 돈이, 먹을 것들이... 하나 둘 없어지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불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여러 방법들을 써 보았지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이라 썼던 것이 벌써 5년째예요. 나중에라도 찾아와서 "미안했어요."라고 말해 줬던 친구들 덕분에, 아직까지 문은 잠겨 있지만 제 마음은 환하게 열 수 있었네요. ^^ 주열이 돈 가져가신 분도 충분히 고백의 용기는 내어 보세요. 고등부 남학생들이 밥도 굶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같이 밥 먹읍시다!!

언젠가는 제 방문도 열리길!

-미리강-

■남자 고등부의 단식을 지지합니다. 또한 점심, 간식 단식에 동참합니다. 이예슬, 박성민은 점심, 간식, 간티크, 카페, 야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빨리 고백해 주세요!!!

그분이 나오실 때까지 점심을 안 먹겠으어요!!!!

-이지민 · 안효원 · 문서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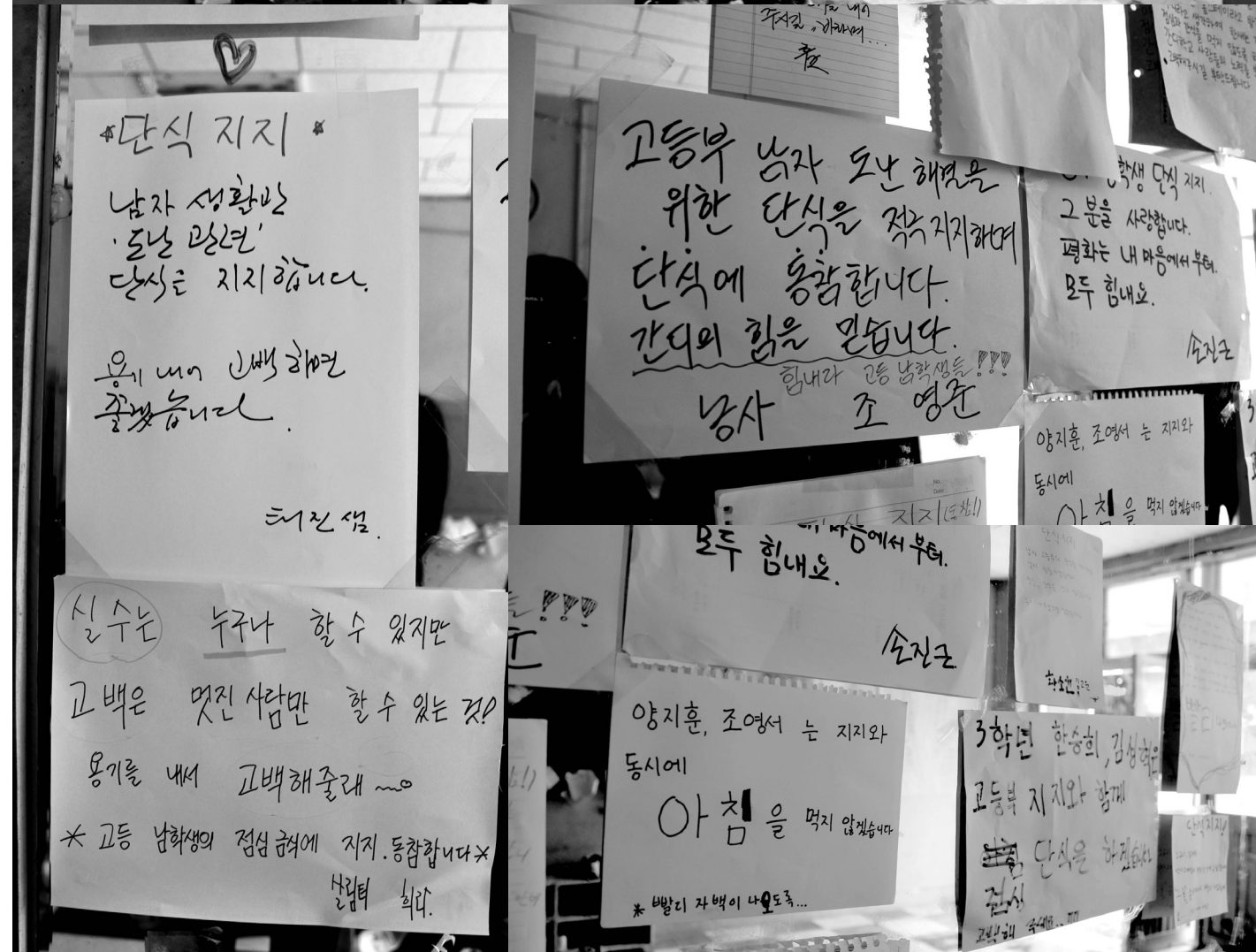
■단식 지지!!

노규리 · 김태은은 언니, 오빠들의 점심 단식에 동참합니다. '그분' 용기 내서 빨리 나와 주세요(점심, 카페)

■김민정 · 손채은은 남자 기숙사 점심 단식에 동참합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등부 남자 도난 해결을 위한 단식을 적극 지지하며 단식에 동참합니다.

간디의 힘을 믿습니다. 힘내라 고등 남학생들!!!



- 농사 조영준

■ 단식 지지(동참!!)

고등부 형들의 남자 생활관 도난 관련 단식을 지지합니다.

김민석 · 하늘찬 · 박지담 · 차한비 · 김가람은 점심과 간식 · 카페, 간티크를 먹지 않겠습니다.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동참하겠습니다. 생활관에서 도난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간디인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간디!

■ *단식 지지*

남자 생활관 '도난 관련' 단식을 지지합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 태진 샘

■ 고등부 남학생들의 단식에 지지하며 함께 단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용기'를 내어 주시길 바라며...

- 후조

■ 지지합니다.

남자 생활관 '도난' 건과 관련한 고등 남학생들의 단식 결의를 지지합니다.

아름다운 문제 해결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행동에 지지, 연대하려고 합니다.

■ 고등 남학생들 단식에 마음 담아 동참합니다.

- 교사 김수자

p.s. 단식 끝나면 자진 철거할게요!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백은 멋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용기를 내서 고백해 줄래~~~~~♥

고등 남학생의 점식 금식에 지지 · 동참합니다.

- 살림터 희라

■ 단식 지지

그분께서 나오시길 빌어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남자 기숙사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식하고 있는 고등부 남자와 함께하는 모든 간디인들을 응원합니다. 그분이 용기 내서 나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있을게요!

- 전진

■ 양지훈 · 조영서,

고등부 단식을 지지합니다.

점심을 먹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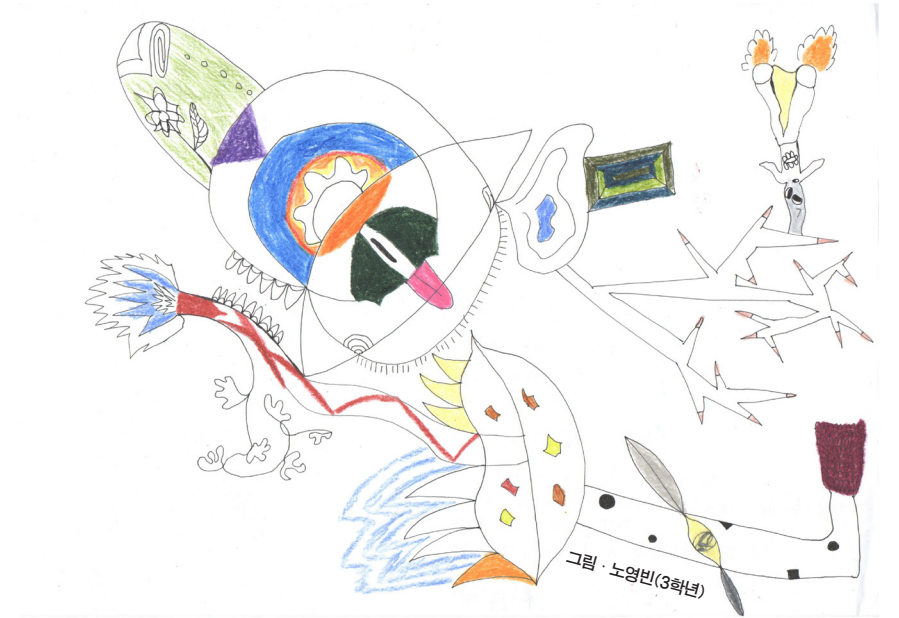
꽃은 도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장계장 군(양)이 빨리 나와 줘요 하네요. ㄹ

성교육 이야기 2

태아에서 첫돌까지

김수자(제천간디학교 교사)



모든 이가 '성성'의 중요성, 청소년시기 '성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하지' '10대의 성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수업은 '알아야 할 성-즐기는 성-만들어 가는 성'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성교육 이야기' 꼭지를 통해 제천간디학교에서 성관련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수업에서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요즘 아이들의 성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수업 밖에서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눌 것인지를 나누고자 한다.

전 생애 중에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알기 위해 '태아에서 첫돌까지...'라는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편지나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 작성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가정학습이나 주말을 이용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 오도록 한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지금은 사춘기'라 칭하며 자신도 이해 안 되는 자신의 행동과 심리, 변화를 어영부영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시점이 동떨어진 우연이 아닌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이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고 부모님과 가벼운 성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내용은 올해 13학년 1학년 학생들 중에 전하성, 박재성 학생이 작성해 온 활동지이다.

※ 게재를 동의해 주신 13학년 박재성, 전하성 부모님께 감사 드립니다.

엄마가 하성이를 임신했을 때

김은선(?학년 전하성 모)

● 준비 엄마와 아빠는 4년간 열애하고, 아빠가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일 때 결혼했어. 엄마 눈에 이 세상에서 아빠가 가장 멋있더라. 3년여 정도 많이 기다리다가 하성이를 임신했지. 엄마가 하성이를 임신했다고,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빠는 너무 기뻐하면서 한 손에는 편지와 다른 손에는 아주 이쁜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오셨더라. 아직도 그때 아빠의 표정이 생생하구나. 아빠의 편지를 읽어 봐~ 아빠가 얼마나 하성이 임신 소식에 기뻐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나의 소중한 문신남자 그리고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여 당신이 경외롭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당신과 나의 생명을 갖게된 것을 천사로 감사드리고.....

이 순간 나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동안 인공의 시간과 노심초사해온 당신이 제 두 아들사를 보내오.

앞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절극복하여 새생명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건강하고 밝은 애기가 태어날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가 됩시다.

당신의 건강과 애기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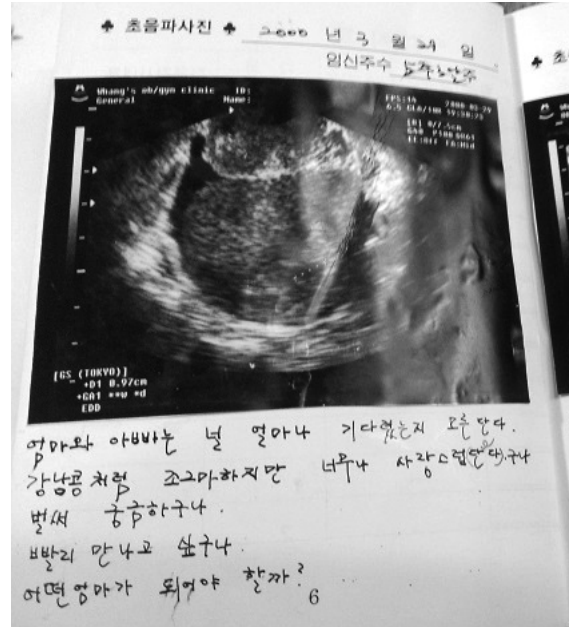
당신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당신의 남편 경이여 음.. 이 천 년 삼월이 십구일 우리의 관계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 태몽 : 태몽은 아빠가 꾸었지. 큰 구렁이 꿈~ 육아 일기 중에서 발췌한 태몽이야기야. 함 아래의 글 읽어 봐~

♡ 태몽 (누가, 언제, 무슨꿈을 -)

아빠가 임신삼개월경도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큰 구렁이가 다정하게 아버 품에 안겼답니다. 아버님, 하나도 안무사유어 있지! 구렁이가

● 첫 느낌 : 하성이를 임신하고 아빠랑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봤단다. 강낭콩보다도 작지만, 쿵쿵 울리는 하성이의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아빠는 너무나 경이로웠어. 초음파 사진에 처음 하성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느낀 감정을 적었어.



● 태교 : 하성이를 갖고 즐겨 먹었던 음식은 한식 즉, 된장찌개·김치찌개 등 토종 음식들을 많이 먹었던단다. 그리고 과일을 아주 많이 먹었지. 그래서 그런지 하성이도 그런 한식과 과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하성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도 포동포동해서 아빠는 엄마가 과일을 많이 먹어서 하성이가 과일 살이 찐 거라고 하셨지. 음악은 딱히 가리지 않고 들었지만 항상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단다. 책은 시집을 많이 읽었다. 엄마가 읽었던 시집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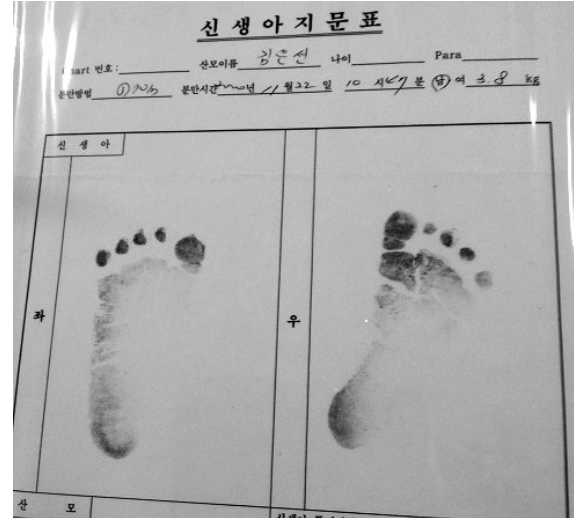


● 아빠가 해 주신 것 : 하성이가 얼마나 컸는지 엄마랑 병원에 함께 가고, 엄마의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면서 하성이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리고 항상 엄마가 편하고 즐거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아빠가 딱 한 번 엄마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안 사줘서 속상했던 했지만... ㅋㅋ

● 하성이가 태어나서
하성이는 2000년 11월 22일 오전 10시 48분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황세영 산부인과에서 3.8kg, 50cm로 태어났단다. 하성이의 탄생 모습이야. 중요 부분은 가렸으니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하성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찍은 발지문이야. 아주 작은 발이 이제는 엄마보다도 더 커졌다니!!



엄마와 아빠는 하성이의 이름을 지었지. 소리오행과 수리, 한자의 뜻 등을 고려해서 말이지~

전정일·김은선의 아들이름을 2000. 11. 26일 새벽1시 30분 소리오행 과 수리, 한자의 뜻들을 심사숙고하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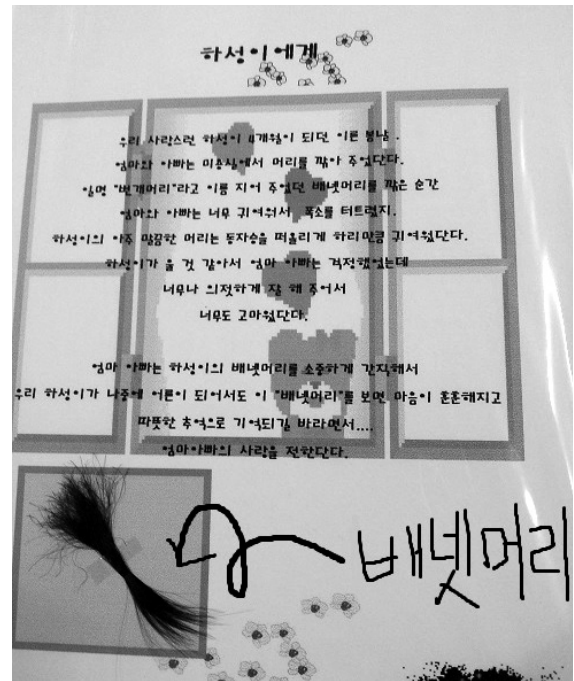
이름: 전 하성 (田賀盛)
 *名: 하(火)하 (土)은 서로 상생관계
 *盛: 성함 성

오행의 상생 법칙
 전→자, 니(金,火)상호 상극 이름 통관시켜 주는 오행 바로 토이다
 아,하 가 토이므로 가운데 이름자를 『하』로
 하→* (土) 불(火)과 흙(土)은 서로 상생관계
 *열기로 흙을 굽는 상생
 성→스, 이(金,土) 쇠(金)와 흙(土)은 서로 상생관계
 *단단한 흙속에서 광물(보석)을 캐내는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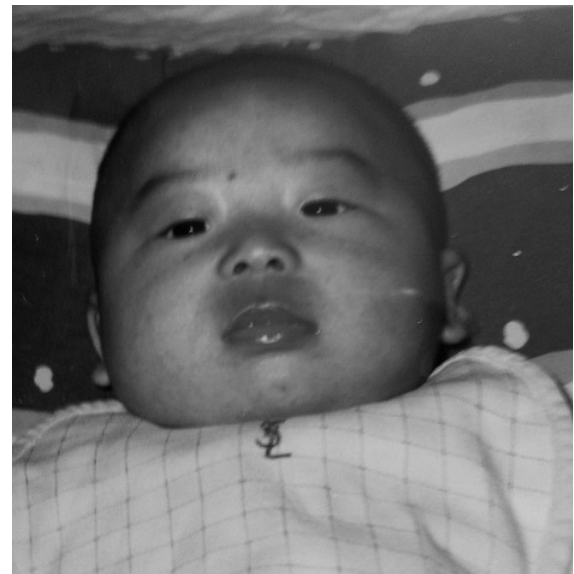
하성이가 배냇저고리야. 엄마는 아직도 보관하고 있지. 옛날 생각이 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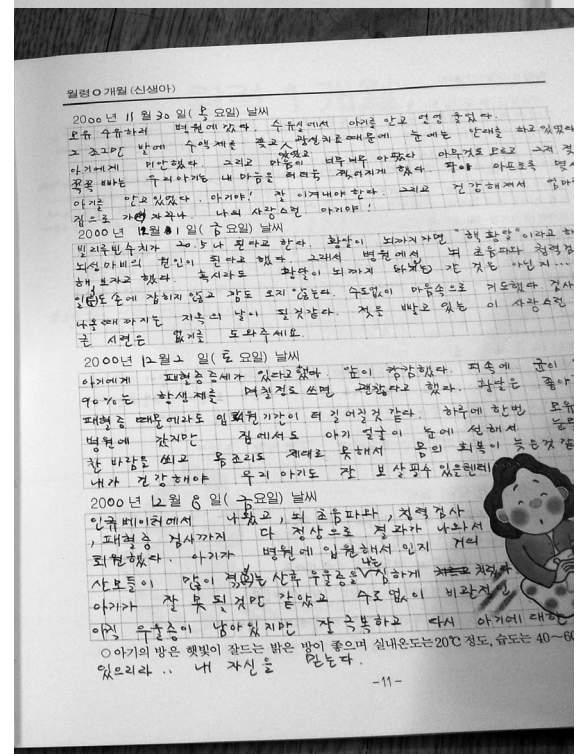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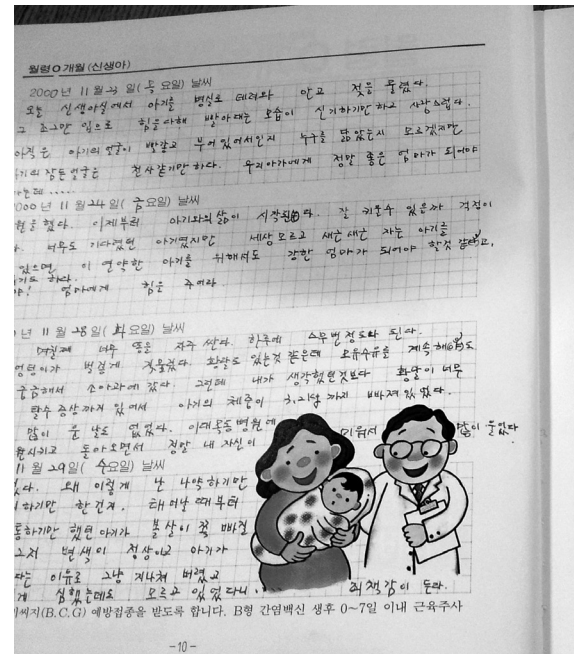
하성이가 처음 미용실에서 배냇머리를 자르던 날 썼던 엄마의 편지야. 엄마는 아직도 하성이의 배냇머리와 배꼽을 보관하고 있지.



하성이가 배냇머리를 자른 후, 응가 싸는 사진이야. 얼마나 끔찍거리며 힘을 주면서 싸던지... 너무 귀여워서 아빠랑 사진을 찍었지. 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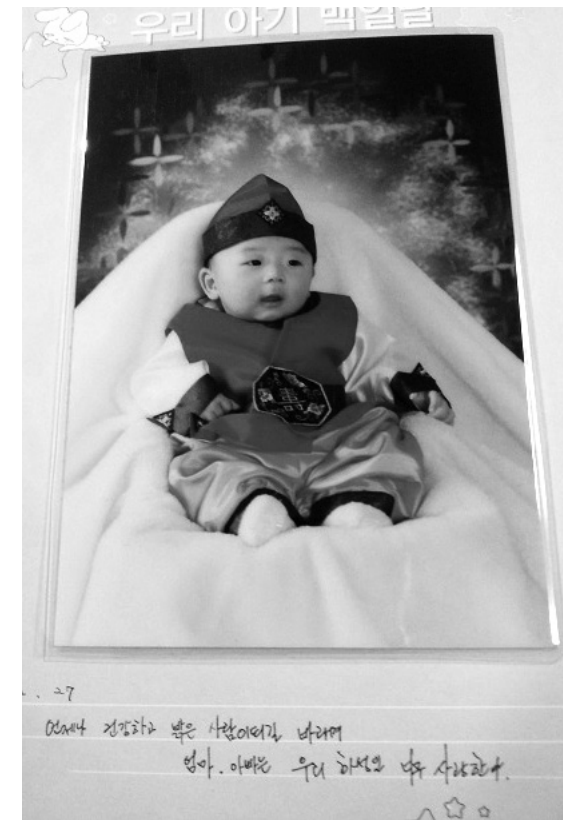
엄마는 하성이가 태어난 후부터 1년여 동안 육아 일기를 썼단다. 황달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었던 일부터 하성이 키우면서 행복했던 일들을 적었지. 다음에 우리 하성이가 읽어 봐~



하성이 백일 때 찍은 발 모형



하성이 백일 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를 갔었지.



하성이가 돌상에서 처음 잡은 것은 무얼까? 그것은 연필이었단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하성이는 연필로 하는 것은 다 잘하지. 세밀화를 잘 그리구 손재주도 많구...



아빠와 함께



● **엄마 아빠가 바라는 올 하성이~**

올 하성이는 남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처럼 자기다움을 표현하면서도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성이면 좋겠어. 하성이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늘 건강하거라.

너를 만나기까지

???(?학년 박재성 모)



● **준비**

누나를 낳고 10년이 다 돼 가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재성이 앞에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를 갖게 되었어. 그런데 그 아이와는 인연이 없었는지 나오지 않고 엄마 배 안에서 잘못됐지. 엄마랑 아빠랑 누나 외에 아이를 갖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그 이후로 아이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지. 결국 아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 그때부터 재성을 갖게 될 때까지 누나하고는 다르게 맘과 몸을 건강하게 가지려고 노력했지. 누나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재성은 엄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세상에 대한 혹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긴 여유가 있었던 때였어. 그러니까 널 가지려고 했던 시간부터 낳을 때까지 많이 행복했고, 널 실제로 만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모두에게 말이야.

● **태몽**

꿈속에 엄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파는 집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 그 고가구 가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돌아다녔는데, 동그랗고

귀엽고 앙증맞은 시계를 하나 발견한 거야. 조그만 시계추가 밖으로 달려서 움직이고 있었고 말이야. 그런데 그 시계에서 숫자가 쓰여 있는 동그란 부분이 갑자기 사람 얼굴로 변하더니,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눈을 찡긐하면서 말이야. 그 순간 그 시계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없이 어느새 내가 그 시계를 품속에 안고 집으로 오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부르며 달려오는 거야. 그 사람은 고가구 가게 주인이었는데 나에게 훔쳐간 시계를 내놓으라는 거지. 누구나 탐내는 시계라 늘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언제 몰래 가져갔냐며 엄마에게 무섭게 화를 내기도 했지. 그래서 엄마가 빌고 용서를 구하면서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내가 꼭 갖게 해 달라고 사정을 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계의 값을 주고 가져왔어. 지금 생각하면 돈을 지불하고 가져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 훔쳐온 채로 꿈을 꾀다면 늘 부채의식에 시달렸겠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널 처음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 거야. 그 얼굴이 시계가 사람 얼굴로 변해서 엄마를 아는 척하던 그 얼굴과 비슷한 인상이라는 거지. 놀랍기도 하고 인연이란 게 서늘하기도 하고.

● **첫 느낌**

인연의 실을 찢다는 삼신 할머니가 엄마에게 왠지 좋은 인연을 가지 아이를 보내 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 ㅋㅋ

● **태교(음악)**

음악에는 깊은 관심은 없어서 찾아 듣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대중음악이 편하고 좋았어. 지금 소위 7080이라고 구분되는 음악이 좋았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노래 감성은 좀 울드했으니까. 조용필 팬덤 1

세대... ㅋㅋ

● **음식**

누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무척 힘들게 했어. 엄마는 뭐든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 사람인데, 그 즐거움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누나를 갖곤 살이 빠지는 편이었어. 그런데 재성은 원래 엄마 입맛보다도 한층 더 많은 음식을 먹게 했고, 가리지 않는 식탐을 자랑하게 했지. 재성을 4월에 가져서 다음해 1월에 낳았는데, 봄을 시작으로 해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맛난 과일을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엄마를 행복하게 하지. 늦둥이 가진 엄마라고 주위에서 챙겨 주시고 해서 맛있고 예쁘고 비싼 과일을 많이 보내 주시기도 했고 말이야.

● **즐거 본 책**

동화를 많이 봤어. 그중에서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다가 감동해서 울컥했는데 엄마의 감동을 전해 받았는지 네가 뱃속에서 첫 태동을 했어. 엄마 배가 움찔하면서 배 위에 올려놓은 책이 들썩거렸거든.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재성이랑 그렇게 통한 그날부터 오랫동안 엄마는 그 생각만 하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 **아버지께서 해 주신 것**

누나의 동생을 갖자는 것에 합의가 되자, 아빠는 굉장히 좋아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나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나 봐. 평소에 안하던 일들을 해 주기도 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아빠는 집안일은 자주 거들지도, 잘 하지도 못했는데 마음을 써 보려고 노력은 하긴 했지. 그리고 아빠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먹을 걸 많이 사다 주는 일이

라 생각했는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자주 물었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아빠였는데 널 기다리는 시간은 참 행복해 보였어.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었을 때 기억이 참 많이 남아. 그리고 그때 엄마가 성당을 나갔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래서 엄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더라. 물론 네가 뱃속에서 나온 이후로 나이 많은 엄마가 널 키우느라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핑계로 성당에 못 나갔지만 말이야.

● **출산**

태어난 날 : 2001년 1월 16일 오전 8시 48분

몸무게 : 3.5kg

태어난 곳: 안양 평촌에 있는 봄빛 산부인과

● **기억에 남는 일**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어. 쉽게 자기의 길을 찾아 나왔지. 누나를 처음 봤을 땐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넌 막 나온 남자 아기가 참 예뻐.

● **돌**

돌상에서 처음 잡은 것 수북하게 쌓아 놓은 쌀이 무색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쌀 한 톨만 잡으려고 네가 얼마나 애쓰든지... 그래서 모두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에 연필을 잡았고.

● **첫돌에 축하해 주신 분들**

늦둥이인데다가 사내아이여서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했고 많은 분들이 너를 축하해 주었지. 친척이라는

잊으려 하였지만 잊어서는 안 돼

전수정 (5학년)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해 살고, 누군가는 그 부끄러움에 몹서리치며 애써 떠올리지 않으려 한다. 사실 대부분은 후자다. 나 역시도 옛날에 했던 낮 뜨거운 것들을 생각하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발길질을 뺑뺑하면서 침대를 구르기도 한다. 솔직히 지금에서야 창피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지했었는지 모른다. 특히 중학교 때.

그때는 말도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구라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면서 일단 무작정 말하고 보고 애들이 반박하면, “맞아! 내가 봤어! 내가 했어!” 하며 밀도 끝도 없이 우겨 대기만 했다. 거짓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애들한테 당당하게 말하기도 했고. (그래도 애들은 이게 구라라는 걸 처음부터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놀려댄다.)

그리고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정말... 모든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싸이월드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겠지만, 난 유독 심했던 것 같다. 뭐, 게시판 제목을 feeling love... 이런 식으로 철자도 틀려 가면서 최대한 아련

돈게 써 놓고, 그 안의 글에는 커플 사진 올려놓고 인소(인터넷 소설)의 명대사를 적어 놓았다. 예를 들면, “너 왜 울어?” “양과 때문에...” “내가 양과냐?” 이런 글들을.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 백묘랑 귀여니가 잘못했네.

그리고 중학교 때 엄마 힘드시게 학교 나가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다. 1년 사니까 학교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2년 사니까 사춘기 오고 또 전화로 울고불고, 논문 쓸 때 되니까 또 나가겠다고 울고불고, 선생님 태도에 화가 나서 울고불고, 친구들 태도에 서운해서 울고불고. 그때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학교 그만두고 예고를 가겠다면서 갑자기 피아노 연습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또 웃기네. 논문 다 쓰니까 필리핀은 가고 싶고 학교도 나가고 싶고 결국엔 필리핀 갔다 와서 학교 나갈 거라고 또 난리를 치고. 결과적으로 나는 지금껏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나갈 거라는 마음을 어느 한구석에 자리 잡아 놓고 쪽 생활을 이어왔던 것 같다. 나는 그냥 아예 마음가짐부터가 달랐다.

필리핀에서 한술이가 말했다. 모든 일들은 끝나기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다 와 주셔서 밀양 박씨 가계의 통합을 이루는 모습이었지. 그리고 아빠나 엄마를 아는 분들 중에 안 오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넉 많은 축복을 받았어.

● 부모님이 바라는 것

살아가는 너만의 이유를 발견해서 소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세상을 보는 공부도 해야 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아야 할 것이고. 물론 지금은 잘 먹고 잘 노는 것도 공부니까. 현재에 충실했으면 좋겠어.

이 활동지를 과제로 내면 가족이 새삼스럽게 과거를 들추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는 난감한 질문은 대부분 PASS! (이러면 안 되는거 아시죠? 성교육은 가장 자연스럽게 밝게 해야하거든요.) 나란 존재가 홀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이들이 알아가면 좋겠다.

이 활동지를 서로 발표하면 대부분 아이들의 반응은...

- ‘아~~~ 오글거려’
 - ‘그 꿈은 거짓말 같아’
 - ‘우리 아빠는 아무 것도 안 했대요’
 - ‘아빠 술담배 끊었다가 지금은 다시 펴요’
- 라며 툭툭거리며 속스러움을 덮어버리려 한다.

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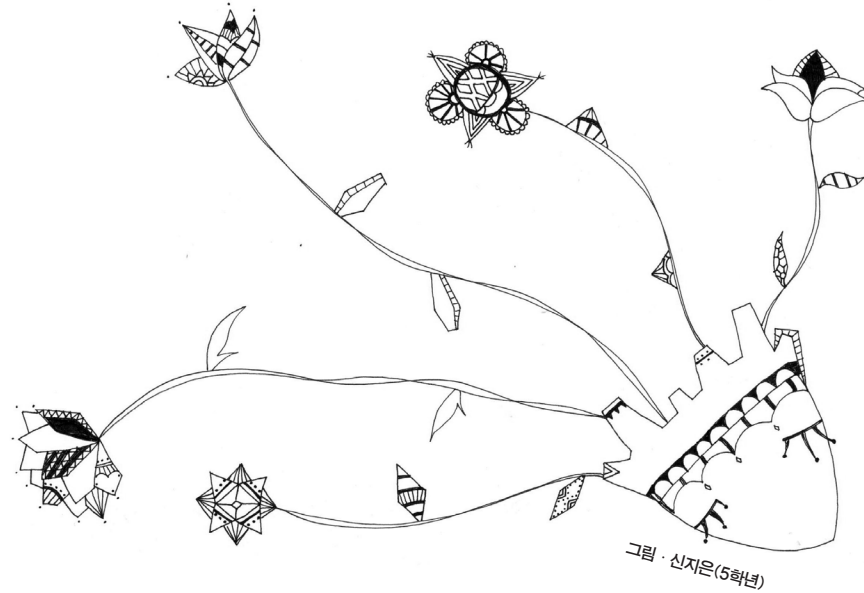
- ‘내 앞에 아기가 있었는데 태어나지 못했대요’
 -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안 알려줘요’
 - ‘나(아들) 태어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했대요. 그래서 누나가 슬펐대요’
- 라며 의문점도 툭툭 던져놓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론은...

‘효도해야겠다’
이다. *^^*

교사인 나 또한 “이렇게 귀하고 예쁘게 낳고 길러온 녀석들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새삼 먹게 된다.☹

마음만은 최연소! 김혜영 후원인



김은수 기자(2학년)

간디학교의 최연장 후원인은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세?100세? 바로 바로 88세!!!...이시지만 최연장 후원인인 이수진 님께선 몸이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네요. 이수진 님 다음으로 최연장 후원인은 바로 간디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김종화 군의 외할머니, 김혜영 님(73세)이십니다. 김혜영님께선 예천 산골에 있는 예쁜 한옥에 살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련인데, 이 상황을 즐기지도 못한 채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쩡쨍대는 시간이 아깝다고. 이 얘기를 내 학교 생활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엔 졸업하기 마련이고,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뿐인 내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나갈 거라는 생각만 가지면서 생활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걸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깨달은 게 아쉬울 정도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떠올리면 힘들 정도로 상처받았던 모든 기억들을 5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기억해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춘기 때 중학교 때 힘들고 친구들이 너무 밋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감정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거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살면서 계속 겪어야 될 감정이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단지 그때는 표현하는 방법이 엄마한테 쩡쨍대면서 학교를 나가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없었고, 환경 역시 집도 아니고 일반 학교도 아닌 '제천간디학교'였으니까

조금 특별했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말이 섞였는데, 결론은 '잊으려 하였으나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왔다고 인정하면서 쿨한 건지, 쿨한 척하는 건지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어찌 됐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도 조금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잊음이 나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진대 어떤 영문에서인지 그러고 있다. 잊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많이 했었다. 내 뇌가 제발 이 기억을 지워 줬으면 했다. 그래도 내 행동을 원망하고 내 손을 원망하고 내 입을 원망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후회는 반복되는 거고, 영원은 없고, 사람은 계속 변화하는 거니까 지금의 이 깨달음도 잊혀지겠지만, 내 기억들과 현재의 내 행동들을 계속 되뇌면서 남은 1년 반을 어물어물 살아야겠지.☹

Q. 자기 소개 부탁 드려요!!

A. 내 나이는 73세이고, 약사였어. 약국을 45년 정도 했었고 그만둔 지는 2년 정도 됐어. 지금은 그냥 친구 약국에서 3시간씩 일하고 있고. 일도 안하고 그냥 있으면 이상하잖아. 근 50년을 일했는데, 그냥 집에 있으려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내가 약사만 해서 잘 놀 줄도 모르거든.(웃음) 그래서 요새는 내 일이 있다는 게 즐거워. 천직이잖아. 그리고 내가 육남매 딸이거든. 옛날부터 제사나 대소사가 굉장히 많았어. 항상 일도 약국 일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웃음)

Q. 옛날부터 꾸준히 후원해 주셨던데, 간디학교를 후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A. 처음에는 (간디학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종화가 들어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렇게 종화가 입학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하게 됐어.

Q. 간디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세요?

A. 일단 전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 영어·수학을 열심히 안 하니까 대학을 어떡하나 싶었지. 나머지 손자들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걱정이 안됐는데, 종화는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그렇게 입학하고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전인 교육이더라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워 오고 겪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Q. 김종화 군이 간디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안학교에 대해 아셨어요?

A. 중화 엄마, 아빠도 중화가 어릴 때부터 중화 교육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간디학교도 여러 군데 중에 제천을 보낸 거야. 나는 간디 학생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부모님들도.

Q. 또 아시는 다른 대안학교가 있으세요?

A. 다른 대안학교... 별로 깊이 아는 데는 없는데. 뭐 지리산 어디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 교육도 해 가면서 대안학교 하는 데가 있다 그리고, 또 대구 주위에는 주로 일반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거길 가고 그런다대. 근데 제천간디는 그런 데가 아니고, 본인과 부모님들이 모두 원해서 가는 데 같아서 좋아.

Q. 손자를 간디학교에 보낸 후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A. 없었지. 좋은 것만 봤지. 잘 크고. 하여튼 뭐 체육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 좋아.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고.

Q. 간디학교에 보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신 적은 있으세요?

A. 중화 엄마, 아빠는 아주 백 프로 잘했다고 하고, 나는 약간 아쉬운 게 대학 문제 때문에.(웃음) 할머니 노파심 때문에 그런 거지.

Q. 손자의 졸업 후에도 간디학교를 계속 후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A. 내가 몸이 많이 아프고 정신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해야지. 또 중화 외삼촌한테 얘기해서 (후원) 좀 해라 하려고.(웃음)

Q. 간디학교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A. 지금하고 똑같지. 주위 분들과 샘들이 애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걸 옆에서 보고 나도 참여하고 있는데, 학부형이랑 선생님들이 진짜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졌어. 중화 엄마도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학교에 애정을 쏟을 때 보면 뭔가 있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Q. 마지막으로, 최연장 후원인으로서 소감 한 마디 해 주세요.

A.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나는 내 나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나이는 많아도 젊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웃음) 지금 후원자가 육칠백 명 정도라던가? 내 생각엔 한 천 명쯤 돼서 간디학교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중화나 앞에 기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가 십년 후의 나거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십년 후가 좌우돼. 자기개발이나 공부나 몸 건강 상태들을 지금 다 관리를 해야지, 안 하면 십년 후에 그게 나타나. 젊은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하면 십년 후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인터뷰하기 전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열심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혜영 님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후원인을 인터뷰해서 많이 긴장했었는데, 집도 소개시켜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신 가족 분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김혜영 님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

간디에서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이예슬 기자(2학년)

어느덧 학교에도 초록빛이 가득합니다! 1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드는 요즘, 학교 생활을 만끽하고 계신 두 분의 신입 쌤이 있습니다. 바로 10학년 은형근 군의 어머니이자 살림터 회계인 고희라 쌤과 남자 기숙사 생활 교사를 맡고 계신 김수진 쌤입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럼, 두 분을 만나볼까요?



Q. 이 학교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희라) 간디학교가 아주 유명해요.(웃음) 초등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형근이를 보냈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간디학교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 안심이 됐죠. 또 양희창 선생님 강의도 들었는데,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 <인간극장>에서 선생님들 생활하는 것도 봤고, 금산 간디대학원 기초과정도 들었어요. 사실 저는 초등 대안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찌다 보니 마지막으로 여기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그만 포기해야지 했는데, 딱 됐죠.

Q. 제천간디학교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희라)그래도 대안학교는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학부모로서의 생활을 10년이나 해 왔어요. 그래서 운영되는 방식 같은 게 많이 익숙했죠. 그게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마침 서울 생활에 염증이 났던 터라 지방 생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학부모이다 보니까 정보를 빨리 접해서 오게 되었어요.

(수진) 솔직히 초등 대안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기숙사가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됐어요. 그때 눈도 오고 밤이어서인지, 기숙사도 깨끗해 보였고 사감 쌤 방도 굉장히 아늑해 보였거든요. 또 계절학교 때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고. (Q. 지금은요?) 지금은 학교보다 기숙사가 더 후진 것 같아요.(웃음)

Q. 학교에 오시기 전에 하시던 일과, 지금 생활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희라) 저는 유기농 요리도 하고, 요가 강사도 오래 했었어요. 여기 오기 직전에는 생협에 간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었을 때는 만 원 가지고 집 밖에 외출을 못했어요. 집 밖에 나온 순간부터 돈 드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카드도 많이 안 쓰고, 비상금으로 만 원만 넣고 다녀도 든든해요. 돈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죠.

(수진) 전에는 방문 논술교사를 했었어요. 모둠으로 독서토론, 글쓰기, 논술, 토론 등 수준별로 다르게 했는데, 그때는 어린애들 기를 뽑아 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애들한테 기를 뽑히는 느낌이에요.(웃음) 그래도 이게 적응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2학기가 되면 좀 더 편찮아지겠죠.

Q. 학교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희라) 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일에 치여 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옆에서도 말려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 학교가 아이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쌤들은 그냥 아이들 옆에서 방향만 잡아 준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수진)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학교에 나무가 많아서 좋아요. 특히 유실수(열매가 열리는 나무). 그리고 학생들이 다 열성적이에요. 열성적인 선배를 보고 후배도 배우고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Q. 그렇다면 적응하기 힘든 점이 있나요?

(희라) 회의가 많은 게 힘들어요. 항상 회의를 많이 하고, 회의가 중요하죠. 거기다 모두 다 모여서 해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조금 아쉽죠. 그래도 다른 학생들은 다들 열심히 해요. 그리고 1학년 친구들이 아직 화합이 안 돼서 가끔 싸우는데, 그게 자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또 개인주의가 조금 심해요. 그런 모습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Q. 학부모와 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희라) 학교에 대한 이해가 풍족해졌어요. 부모로서 볼 때는 학교의 3분의 1만 본 거잖아요. 그런데 교사가 되니까 또 다른 3분의 1을 보게 돼서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학생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Q. 살림터에서 일하시니까 학교 상황에 대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라) 요즘 중등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신입생 숫자나 문의 전화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처럼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입생을 뽑을 때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Q. 여자와 남자의 생활 모습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남자 기숙사의 평소 생활 모습이 궁금해요.

(수진) 더러워요.(웃음) 정리정돈도 잘 안 되고. 근데 씻는 건 열심히 씻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요즘은 학기 초반에 비해서 후배들을 잘 챙겨 주고 신경도 많이 써 줘서 보기 좋아요.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모습도 좋고.

Q. 혹시 기숙사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수진) 음, 딱히 에피소드라고 할 건 없고, 지난 토요일에 어떤 1학년 남학생과 함께 자면서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1학년들도 의외로 생각이 트여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랐어요. 그게 특별한 일이었죠.

Q. 요즘 관심 가지고 하고 있는 일 있으세요?

(희라) 예전보다 쉬는 시간도 늘어나고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고 학교에서도 (자급자족을) 지향하니까 바느질, 요리같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수진) 저는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키우기 쉬운 민트나 사시사철 푸른 난, 금사철,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키워 보진 못했던 딸기나 기린초 정도를 키우는 중이고, 화분이 10개 넘으면 선생님들께 선물로도 드릴 생각이예요.

Q. 앞으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희라) 일단 업무상으로는 제 일이 회계 담당인데, 아무래도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과 선생님이 아니니까, 학교에서의 위치를 조금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체계를 조금 더 갖추고 자리를 잡아 놓는 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주거가 안정이 안 됐는데, 생태적으로 예쁘게 나만의 공간을 꾸미고 싶어요.

(수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기숙사 주변을 꾸미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을 더 즐길 수 있게끔 나무를 더 심는다거나, 기숙사 중앙정원을 가꾸는 일 같은 거.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고 싶어요. 이번 집중식 수업 때부터 국어 수업을 조금씩 해 볼 계획이에요.

Q.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학교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좀 해 주세요.

(희라) 물건을 좀 아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학교에 영원히 있을 게 아니라 후배나 후임들에게 물려주고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건물이나 기자재 같은 것들을 아껴서 오래오래 온전하게 있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학생들에게는 지금 해 온 것처럼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싶고, 학교에는 회의를 좀 줄여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웃음)☺

되고, 최소한 반대는 없어야 결정이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루하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수진)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게 적응이 안됐어요. 일반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는 부모님도 축제나 학교 행사 등에 열심히 참여하시니까 조금 당황했죠.

Q. 간디학교 학생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희라) 되게 착하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 학교 학생들만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 누군가가 반기를 들고 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제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어른스럽게. 또 끊임없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수진) 거의 열심히 하는데, 종종 다른 애들에 비해

작업장,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한 일터

홍지인 기자(5학년)

작업장의 역사

2006년, 제천간디학교에 고등과정이 생겼다. 고등과정이 멘토 제도(전 고등부 학생을 3~4개 반(한 반에 10명 정도)으로 나누고, 교사 1명이 ‘멘토’, 학생들은 ‘멘티’가 된다.)로 운영되었다. 2009년에는 이동식 해외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안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 체험으로 얻는 배움을 위한 개인 움직이는 학교와 인턴십도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며 시작되었다. 또한 학교에서 지향하여 공부해 온 ‘친환경적 삶’과 ‘자급자족’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작업장’이 만들어졌다. ‘작업장’은 공동작업을 통해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돕는 수업이다.

2008년 기획하고 2009년부터 실행된 작업장. 초기 작업장은 샘과 면담을 통해 원하는 학생들이 수강했고, 주 4회 수업이었다. 5학년을 주축으로 시작된 작업장은 카페였고, 체득화하는 과정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그 뒤를 이어 비누공장과 다른 작업장들이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선택 수업에서

필수 수업으로 바뀌었고, 수업 차시도 늘어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작업장이 운영되었기 때문에(현존하는 작업장 외에) 대안에너지, 출판사, 대안화폐, 빵공장, 마을 봉사, 시설 작업장과 같이 많은 작업장들이 생겨났으나 지속성 등의 문제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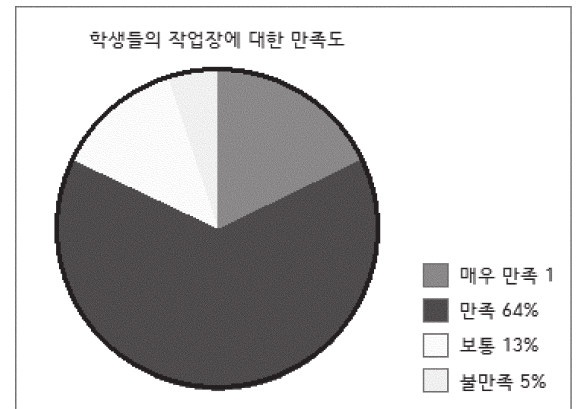
지금의 작업장

작업장은 현재 고등부 수업 시간인 일주일 30시간 중 10시간 30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수업이 되었다. 2013년 1학기 현재 총 다섯 개 작업장이 운영 중이다.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환경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비누공장’, 에코디자인을 지향하며 학교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간디디자인’, 학교 먹거리 철학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 간식 납품을 하고 전통 음식(장, 효소, 장아찌 등)을 만드는 음식 작업장 ‘미미味美’, 유기농산물과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여 간식거리를 만들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카페 ‘장미다방’, 농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는 농사 작업장이 있다.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작업장들은 신설 작업장인

간디자인을 제외하고, 1~2년 정도 운영되면서 차츰 안정적으로 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활동 자체도 전문화가 되어 더 숙련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번 학기부터 덕산 장터(4, 9일장)에 나가 카페는 또띠아 피자 만들기 체험, 비누공장은 비누 만들기 체험, 간디자인은 실크스크린 체험 워크숍을 하면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들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우리만 얻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살자는 학교 철학에 맞추어 방법을 모색하던 중, 덕산에서 시작한 ‘마을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와 맞물려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작업장에 대한 만족도

학생들의 작업장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생 50%인 25명이 작업장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으며, 7명은 매우 만족, 5명은 보통, 2명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대답한 경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프로그램이 알차고 재미있다’, ‘함께 일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새롭게

접할 수 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립적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는 ‘재미지만 힘들다’, ‘학교 지원이 부족하다’, ‘일원끼리 사소한 마찰이 자주 생긴다(소통이 안 된다)’, ‘뒷정리를 안 한다’, ‘프로그램은 좋은데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과정보다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조금 달라진다’, ‘작업 분배가 잘 안 되어 좀 힘들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작업장 경제교육

작년에 특강식으로 1회 진행되었던 ‘작업장 경제교육’이 모든 작업장 구성원이 수강해야 하는 필수 수업이 되면서 작업장을 통해 노동, 공동체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다. 작업장 경제교육 수업에서는 대안적인 경제, 즉 비인간적인 현재 경제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에 대해 공부한다. 그 일환으로 현재 작업장 운영방식인 공동출자, 적립제, 배당 원칙에 대해 배우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해 발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강수돌(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우(농협경제연구소) 선생님, 최혁진(원주 사회적 기업 진흥원) 선생님에게 노동과 자본,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했다.

작업장 경제교육은 일주일에서 한 번 있는 수업으로 다른 수업보다는 차시가 적지만, 강의 외에는 매 수업마다 반별 과제가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입이 심심한 점심시간엔? 학교 매점, 간티크!

김예림 기자(3학년)

점심을 배부르게 다 먹고 입이 심심할 즈음, 무슨 일인지 2층 만남의 광장에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시에 열리는 학교 매점 간티크! 간티크의 담당교사인 수자 샘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간티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과자만 파는 이유는? 모두 궁금증을 풀러 가 볼까요~!

Q. 안녕하세요! 간티크(매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A. 간티크는 간디학교의 건강한 간식문화를 위한 교내 학생 자치 매점이에요. 현재 월~금요일에 오후 2~3시까지 1시간 동안 2층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고 있고, 2007년도에 처음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간티크를 기숙사에서만 하기도 하고, 금요일 점심에만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간티크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일주일에 2시간만 간티크를 여는 건 건강한 간식문화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에 평일 내내 하게 되었어요. 또한 학생들이 간티크를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과자를 주문하는 일이나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부담되기 때문에, 담당교사인 제가 관리하며 학생들이 판매하는 지금의 형태로 진행되었죠.

Q. 간티크를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은 어떻게 모으셨나요?

A. 학생회 20만 원, 학교 지원 20만 원, 교사 투자자

4명의 20만 원, 총 6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교사 투자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자로 학기 중 월마다 과자를 한 품목씩 주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수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로 팔았더니 학생이 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 적자 위험이 컸어요. 그래서 나중엔 가격을 100원, 200원씩 올려서 판매했죠. 현재 학교에서 투자한 돈은 다 돌려주었어요.

Q. 간티크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간티크는 학교 수업 중에 샘들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다 주거나,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적당해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또 일상다반사, 전산실 장학생 등 학교에서 줌을 받고 일하는 학생들이 줌을 쓸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간티크를 통해 줌을 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올해 간티크를 운영할 학생을 모집했을 때, 대부분 1학년들이 신청을 해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선배들 이름도 모르고, 돈 계산도



서둘 것 같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간티크를 하며 선배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빨리 외우게 되어서 더 좋았다고 해요. 의외로 그런 부분이 간티크의 장점이 되기도 한 것 같네요.

Q. 학교 옆 매점이 금지된 이유 중 한 가지가 여기저기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인데, 간티크에서 생기는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줄여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학교 옆 매점을 이용할 때는 마을 길가에 쓰레기가 버려지는 바람에 주민 피해가 심했거든요. 생각 중인 대안으로는 매점 옆에 쓰레기통을 놓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하지만 매점을 여는 공간도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Q. 간티크 운영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어요. 1학년 아이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 주고 있고, 저 역시 작년 2학기부터 맡아 했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학기에 안식 학기를 끝내고 계산 잘하는 수학 쌤이라는 이유로 간티크 담당을 시킴 당했었는데(웃음). 저에게는 간티크를 제가 계속해서 맡을 게 아니니까 나중엔 제가 아니라 다른 쌤이 해도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Q. 간티크 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간티크 과자를 주문할 때 소비자 협동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과자를 택배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등 생각보다 제약이 많아요. 아이쿱(icoop)이나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매장이 없기 때문에 주문할 수 없는 지리적 제약이 따르기도 하죠. 또 과자의 가격이 2,000원이 넘으면 학생들이 사먹기 힘들고,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 다양한 식품을 팔아 보려고 해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유통기한 때문에 팔기가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새롭식품이라는 중소기업과 초록마을에서 친환경 과자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Q. 간티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가장 인기 있는 과자는 단연 라면과자! 그 다음으로 꿀단지, 초코웨하스, 계란과자 등이 있어요. 라면과자는 일단 가격이 싸기도 하고, 학교에서 못 먹게 하는 라면을 해소하는 요소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중에과는 뿌서뿌서와 비슷하기도 하고, 가끔 불량식품 같은 것이 땡길 때 먹는?(웃음) 꿀단지나 초코웨하스, 계란과자는 양도 많고, 달달해서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Q. 앞으로 더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A. 간티크는 뭐 이것저것 발전을 시키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대박 치는 것보다 그나마 건강한 간식 문화를 소소하게 이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작년엔 고등부 작업장 카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카페와 간티크를 같이 하다 보니 학교에서 간식을 너무 많이 제공하는 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었어요. 애초에 간티크는 학생들이 간식을 먹을 때 그나마 건강한 간식을 먹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간식을 자제하고 억제해서 간티크가 망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서 고민하는 지점도 간티크 과자가 없으면 안 먹을 텐데, 있으니까 먹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해요. 지금 중등이 고등보다 훨씬 자제하지 못하고 많이 사 먹는데,

중등이 조금 더 자제하길 바라요.

별 생각 없이 사 먹었던 간티크 과자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몰랐네요. 언젠가 학생들이 스스로 자제해서 간티크가 문을 닫는 게 좋은 결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느낀 게 많은 인터뷰였어요. 인터뷰에 응해 주신 수자 쌤 감사합니다! :-D

▶간티크의 역사

지금의 간티크는 2007년, '자치 매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에 금지되어 있는 학교 옆 매점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매점 가는 것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친환경적인 과자를 팔아 보자는 계획을 세우자고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05학번 몇 명이 모여 학교 자치 매점을 열게 되었다.

학교 자치 매점을 시작할 때 학부모임들이 냉장고나 후원금을 지원해 주셨고, 학교에서 공간을 빌려 봉지 과자와 식혜로 판매를 시작했다. 친환경 과자라 잘 팔리지 않기도 했지만, 처음 시도한 학교 매점이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특히 식혜는 시원해서 여름에 인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믿고 물건 보관하는 곳을 잠그지 않았다가 여러 차례 도난에 의해 문을 잠그기도 했다.

그렇게 처음이라 문제가 많았던 학생 자치 매점은 점점 사라져 가다가, 2011년도 학생회장인 다모, 한솔이 선거공약으로 학교 자치 매점 활성화를 내걸었다. 간티크라는 이름 역시 학생 공모를 통해 붙여진 것이며, 이때 간티크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라고 한다.

그 후 학교 자치 매점은 학생회에서 주최하는 간티크로 바뀌고, 현재는 또 다른 형태인 매점으로 달라져서 이어지고 있다.☺

간티크, 그 생생한 현장 속으로!

김예림 기자(3학년)

나른한 점심시간, 오후 2시 35분 간디학교 2층 만남의 광장 간티크에 미모의 여기자가 들이닥쳤다! 당시 사건 현장의 피해자 이시은(2학년), 김단아(2학년), 유지현(1학년)!! 과연 미모의 여기자는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당장 소문의 그곳으로 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다반사 기자 김예림입니다. 일상다반사에서 매일 점심시간이면 학교 매점 간티크를 운영하는 여러분을 취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바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Q. 사실 매점을 열면서 돈 계산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물건을 파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처음 매점을 시작했을 때 소감이 어땠나요?

(시은) 정신이 없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단아) 바로 눈앞에 있는 간티크 과자가 먹고 싶었어요~ 간티크 하면서 자꾸 사 먹게 되니까 용돈이 더 준 것 같아요.

(시은) 매점으로 줌(학교 내 대안화폐. 간티크 시간당 500원씩 받을 수 있다.) 벌려고 하다가 더 돈 나간 꼴이 좋ㅋㅋㅋㅋㅋㅋ

(지현) 저도 너무 참기가 힘들었어요.

Q. 매점을 운영하면 분명 힘들고 귀찮겠지만, 이런 점이 좋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단아) 라면과자처럼 인기 많은 과자들은 일찍 안 오면 다 팔려 버리는데, 간티크를 운영하면 바로바로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특권! ㅎㅎ

(시은) 매점 운영이 잘 되든 안 되든 줌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처럼~

(지현) 맞아, 맞아.

Q. 학생, 쌤들 등 많은 손님들이 점심시간 매점을 운영하는 짧은 한 시간에 몰려드는데, 정말 이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 무엇이 있나요?

(단아) 매점 과자를 고르면 장부에 누가, 무엇을, 얼마에 사 가는지 다 적어야 하는데, 다 적지 않았는데도 획 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시은) 과자 진열해 놨는데, 장난으로 그거 다 부수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

하한 기자(4학년)

2013년. 간디학교가 제천으로 이사를 온 지 11년째 되는 해이다. 지난 겨울 호 '학교 공간 사용'을 주제로 했던 사설의 연장으로, 이번 《간디IN》 여름 호에서는 제천간디학교와 '에너지'라는 주제가 채택되었다.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스턴트 음식은 물론 휴대폰도 쓰지 않으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간디학교. 하지만 그 걸음에 맞추지 못하는 에너지 사용 문제를 다뤄 보자.

Q. 그렇다면 가장 화나는 진상손님 베스트 3은?

(지현) 제 옆에 있는 이런 애! 막 과자 몰래 가져가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 먹고, 팔고 있는데 방해하고, 옆에서 자꾸 서성이고 그래요!

Q. 매점을 운영하며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요?

(지현) 과자가 싹 다 팔릴 때요!

(시은) 과자가 다 팔리기도 하지만, 인기 없는 과자는 한두 개 남기도 해요~

(단아) 끝나자마자 칼 퇴근할 때 ㅎㅎㅎ

Q. 나에게 매점은 ()다!

(단아) 매점은 회사다!

(지현) 매점은 식당 같은 존재.

(시은) 줌 벌이용 안정적인 직업!

네, 정말 잘 들었어요! 사람이 복잡복잡한 간티크를 보니, 조금 힘들어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간티크를 운영하는 학생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이만 취재를 끝내겠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쳐 인터뷰를 했는데도 친절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모두 안녕~:D🐼

전기

화창한 날 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4기의 태양열 발전기에서는 하루 평균 12kw의 전력이 생산된다. 난방이 필요하지 않은 여름철에는 이 태양열 발전기에서 뽑아 내는 전력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쓸 수가 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을 하고, 전열기를 쓰기 시작하면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받아와 쓴다. 학교에서는 하루 30kw 용량의 전기를 한전에서 받아오고, 30kw의 거의 근접하는 전기를 매일 쓰고 있다.

밤이 되면 학교 2층 건물을 난방하기 위해 낮 시간대 쓰는 일반 전기와는 다른 '심야 전기'를 받아 온다. 난방이 주목적인 심야 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1년 사용량은 약 10만 kw용량으로, 1년에 약 4만 kw를 사용하는 일반 전기보다 2배 이상 사용하고 있다.

기숙사는 어떨까. 기숙사도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으며 이 비용이 매우 높다. 2012년 제천간디학교 전기 사용량 통계 자료를 보면 기숙사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쓴 3월의 경우 2만 kw의 전기를 사용했다. 기숙사는 학교에서 쓰는 심야 전기와는 다르게 1년 동안 상대적으로 꾸준한 전력 소비를 하고 있고, 사용량은 1년에 약 10만 kw에 달한다. 여름철과 겨울철, 학교와 기숙사에서 쓰이는 전기 사용량은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약 2,600만 원이 지출된다.

가스(LPG)와 석유

가스 사용의 경우도 기숙사와 학교로 나눌 수 있다. 학교의 경우 하루 3기를 책임지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스 값은 연 400만 원 정도이다.

기숙사에서는 전교생이 쓰는 온수를 가스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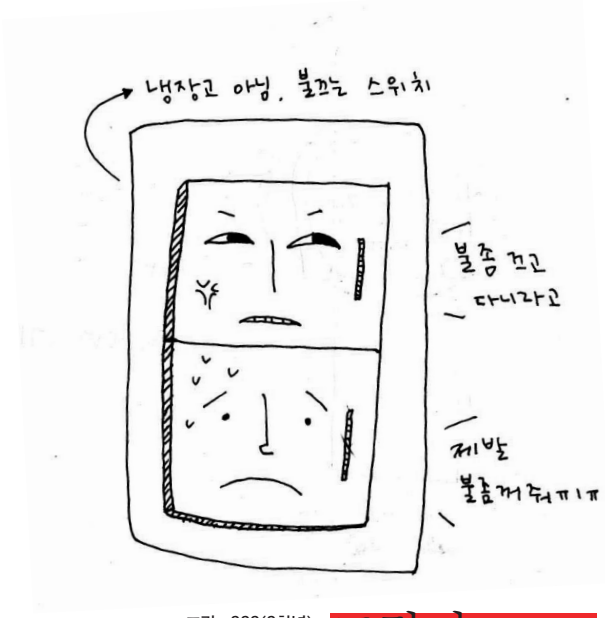


그림 · ???(?학년)

그린이 확인요

(학교에서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겨울) 전기세
 ⇒ 약 300만 원

작은 LPG통을 쓰는 식당과는 달리 2.4톤 규모의 대형 가스통을 쓴다. 한 번 충전할 때마다 55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적어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충전을 하게 된다. 1년에 가스비로만 지출되는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이다.

학교에는 차량이 그레이스 1대, 스타렉스 2대, 트럭 1대가 있다. 4대의 기종 전부 경유를 사용한다. 유류비로만 월 평균 15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많이 쓰일 때는 30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 또 겨울철 기름난로에 쓰이는 등유는 3드림(1드림=200L)을 사용하고 약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용이 에너지 사용만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

학교는 마을에서 쓰는 물탱크 펌프 비용으로 연 60만 원을 내고 부족함 없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 매

기 설거지를 포함한 식당에서 쓰이는 물 이외에는 크게 과사용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기숙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마을 펌프를 같이 쓰고 있는 학교와 달리, 기숙사에는 기숙사용 물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설치했다. 학생들은 오후 6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기숙사에 있고, 학생들의 생활 패턴상 하루의 평균 2번 이상 목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으로 학생 몇 명을 조사해 본 결과, 목욕 시간이 남학생은 평균 12분, 여학생은 평균 23분이 걸리고, 남녀 평균 17.5분 동안 100명 남짓 되는 학생들이 쓰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목욕 대야가 하나도 없어 샤워기에서는 샤워 시간을 꼭 채워 물이 나오게 된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물 사용량도 있지만, 물을 끌어오는 펌프의 전기 사용량과 온수를 쓰기 위한 가스 사용량과도 연결된다.



그림 · ???(?학년)

심각한 거 같긴 한데...

‘에너지 문제에 대한 간디인들의 인식 조사’란 주제로 학생 9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에너지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9.2% 이상이 ‘예’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출되는 월 전기세, 유류세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3명 중 7명밖에는 ‘예’라고 답하지 못했다.

위 설문 결과는 제천간디학교의 현 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식이 발견되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주의 에너지

도난이나 폭력 사건이 터지면 전교생이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한 곳에 모여 길고 긴 회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한 학기가 채 되기 전 기숙사의 온수를

테우는 가스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전교생이 한 곳에 모여 원인과 해결 방안을 얘기할까, 찬물로 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삼삼오오 모여 신세 한탄을 늘어 놓을까. 서로 나누는 과정 없이 아무리 에너지 절약을 이야기한들 내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매주 가족회의에서 ‘이 주의 에너지’라는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다. 매주 사용된 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전교생이 나누고, 저번 주에 비해 절약이 되었는지를 비교해 보고 축하 또는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나의 문제로 인식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지자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 지침서

학생들이 평소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 동아리 ‘뽕 아저씨’가 사용하는 대형

제천간디학교 전기 사용량(2012년)

학교	사용량(kwh)		금액(원)	학교 심야	사용량(kwh)		금액(원)	기숙사	사용량(kwh)		금액(원)
	연도	2011			2012	연도			2011	2012	
1월	2,147	3,594	422,310	1월	12,800	13,900	1,037,200	1월	8,617	7,684	1,173,120
2월	1,120	2,927	467,440	2월	7,700	12,200	910,200	2월	3,397	14,618	1,829,850
3월	4,125	5,048	535,160	3월	13,900	20,300	1,099,830	3월	14,505	16,474	1,571,080
4월	2,915	3,089	401,290	4월	10,000	6,300	340,540	4월	9,134	6,869	914,730
5월	2,790	2,258	344,510	5월	10,000	1,600	85,630	5월	6,612	4,466	750,530
6월	1,598	2,057	330,770	6월	4,300	700	38,000	6월	1,845	1,171	524,470
7월	2,440	1,992	408,550	7월	4,300	800	43,000	7월	1,712	996	554,520
8월	2,268	2,593	490,110	8월	2,400	800	44,780	8월	2,199	1,769	660,340
9월	2,762	2,947	406,800	9월	2,400	1,000	56,960	9월	6,721	5,099	825,770
10월	2,990	3,721	461,710	10월	7,800	8,700	495,260	10월	9,263	9,502	1,140,980
11월	5,293	6,684	855,090	11월	13,000	17,800	1,395,320	11월	16,644	14,371	1,876,260
12월	5,998	6,012	746,020	12월	17,100	15,000	1,175,650	12월	9,411	13,994	1,839,180
계	36,446	42,922	5,869,760	계	105,700	99,100	6,722,370	계	90,060	97,013	13,660,830
증가율	6,476	117.8%		증가율	-6,600	93.8%		증가율	6,953	107.7%	

2012년도	사용량(kwh)	월평균(kwh)	전기세(kwh)	월평균 전기세(kwh)
		239,035	19,920	26,252,960

통계자료 -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오븐과 작업장에서 쓰이는 오븐, 전열기 등이 있고, 축제가 있을 때마다 사용되는 조명 등이 있다. 동아리실과 작업장실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사용법과 사용 규칙을 정확히 정해서 게시해 놓는다. 그리고 매년 신입생들이 동아리에 들어올 때마다 정기적인 기기 사용 교육과 학교 단위의 에너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 단위의 활동도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이다.

생활이 되어야

여자 기숙사의 경우, 기상 시간인 6시 50분부터는 전신 샤워가 금지되고 머리만 감을 수 있다. 짧은 기상 시간에 50~60명 되는 인원이 모두 샤워를 하게 되면 퇴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 만들어진 배경은 남학생들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목욕 시간 탓이다.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민 지점은 크게 없다. 그러나 수치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물 절약이 되고 있을 것이다. 전신 샤워와 머리만 감았을 때의 물 사용 시간은 3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남학생들의 경우도 아침엔 머리만 감자는 약속을 하는 등, 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 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

올해 봄 벚꽃이 질 무렵, 여태 당연하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덕산에서 컵라면을 먹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회의를 거쳐 '자체'를 전제로 하여 허용되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며 세상과 타협하고 인정해 가며 살아가고 있다.



제천 간디학교
일일 전력 소비량
→ 약 30kw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약 30년 전후로 석유 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예상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첨단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인간이 만든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세계가 문명화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자. 제천간디학교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살아가기 보단 우리의 걸음으로 살아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 진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춘 발걸음은 우리가 걷고 있는 걸음걸이가 아닐까. 무한하지 않은 에너지, 아직 풍요롭다며 외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시대의 흐름이 아닌 '우리의 흐름'의 맞춰 아껴 나가는 생각은 곧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아직 우리의 걸음걸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희망을 보며, 이 글을 마친다.☺

5월 4일 덕산 장터

(비누공장, 간디자인, 자원봉사 페이스페인팅)
 시끌벅적 덕산 장터에 빛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간디학교 작업장! 비누공장, 간디자인 그리고 간디학교의 화가들이 장터를 위해 많이 준비했는데요. 비누공장은 덕산 주민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자리와 천연 비누와 천연 화장품을 파는 자리를 마련했고, 간디자인은 사람들 앞에서 옷에 무늬를 넣는 과정(실크스크린)을 보여주고 덕산 주민들이 직접 실크스크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디학교의 화가! 오지영과 양지훈, 김혜린, 최소은 학생이 자원봉사 팀으로 어린이들의 손등과 얼굴에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신나는 모습과 열심히 일하는 간디학교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활기찬 덕산 장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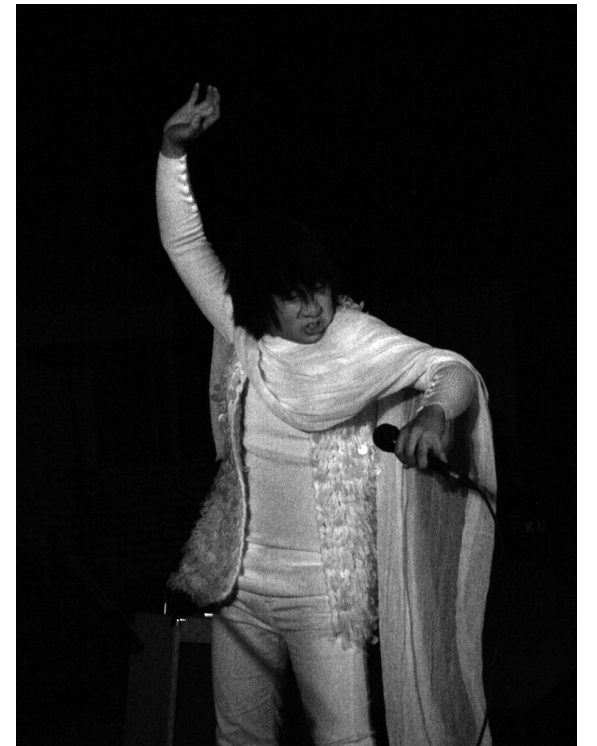
5월 5일 어깨동무, JTS와 봉사 활동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햇살이 나른한 어느 오후에 JTS가 참여한 어린이날 행사에 어깨동무 학생들이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은 탓인지 모두 들떠 보였습니다. JTS는 가난과 신분적 차별 때문에 배우지 못한 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인류애를 실천하고자 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어깨동무는 그곳에서 모금도 하고 멋진 공연도 하였는데, 봉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두 뿌듯하고 보람찬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5월 6일 <지슬>

이번 문화의 밤에는 <지슬>이라는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덕산 주민들이 강당을 꽉 채웠습니다. 영화를 잠깐 소개하자면 1948년 11월, 4·3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해안선 5km 밖 모든 사람을 폭도로 여긴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삼삼오오 모여 피난길에 오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산속으로 피신하였지만, 곧 돌아갈 생각이었지요. 따뜻한 감자를 나눠 먹으며 집에 두고 온 돼지 굶주릴 걱정, 장가갈 걱정 등의 소소한 가정사를 늘어놓으며 웃음을 잃지 않는 제주 어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냈습니다. 전쟁 통에 일어나는 애절한 사랑과 비참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1일 전야제

대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여러 동아리들의 공연들이 전야제를 빛냈습니다.



방문의 날

어제서인지 학교에 낯선 얼굴들이 가득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 제천간디학교를 알리는 '방문의 날'이더군요.:D 학교에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뭔가 든든하고 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간디학교를 널리 알리고 더 활기찬 간디학교를 만들어요~



5월 12일 대동제

11일 저녁 전야제에 이어, 대동제 역시 학교 운동장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봄 냄새가 물씬 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여러 가지 부스를 들락날락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하며 친구들과리 재미나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대동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5월 14일 무빙/움직이는 학교 계획서 발표

5학년들이 무빙 계획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무빙인 만큼 더욱 즐겁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모두 알차고 재미있는 무빙 다녀오길 바라요~



5월 21일 논문 계획서

3학년에게 첫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푸둥! 바로 논문! 엇그제가 입학식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논문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비를 열심히 넘어 멋진 논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5월 22일 문화의 밤 '씨알누리' 공연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신나는 '씨알누리'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정말 풍물의 끝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풍물 동아리인 슬피바람의 방학 전수도 맡아서 해주시는 씨알누리는 정말 듣직합니다.



5월 25일 교과 발표회

어느덧 1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돌아왔네요. 바로 교과 발표회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수업들을 가지고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모두 재미있는 수업들을 들은 것 같아요.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뽐내고 서로서로 극찬해 주면서 교과 발표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6월 13일 필리핀으로 출국

벌써 4학년들이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전과 다르게, 올해는 1학기 무빙 기간에 필리핀을 가는데요. 지금까지보다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배우고 잘 놀다 왔으면 합니다. 즐겁게 다녀 와요! ♡



기자 후기
www



이예슬

신입이라 많이 부족한데 마감도 못 지켰어요.ㅠㅠㅠㅠ죄송해요. 다음부터 잘 지키겠습니다. ㅎㅎㅎㅎ



이한솔

안녕하세요! 신입기자 이한솔입니다. ㅎㅎ 처음으로 내는 소식지라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봐 주세요. ^^다음 호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ㅎㅎ



김민석

매호마다 기사를 쓰지만 어느 기사 하나 대충 쓴 적이 없습니다. 이번 고등교육관 기사 역시 한동안 안 쓰던 머리를 써서 정확히 판자놀이와 이마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썼습니다. 같이 기사를 썼던 별 누나도 필리핀으로 떠나 버려 저 혼자 고등교육관의 취재를 위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어쨌든 기사를 다 써서 기분 좋습니다. 일상다반사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호도 열심히 해 봐요~ 안녕~!



안효원

올 여름 호도 무사히 마감했네요 ㅎㅎ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열심히 한 만큼 잘 나왔길 바랍니다!!!:-) 우정언니!!논문이랑 여름 호 같이 한다고 수고했소요!! 짱이얏 ㅎㅎ 다음 호는 더 재미있게 합세허허허 현영 언니도 짱이얏 ㅎㅎㅎㅎㅎㅎㅎㅎ



김은수

처음으로 외부 후원인을 인터뷰해서 많이 떨렸는데, 나름대로 잘된 것 같아요. ㅎㅎ 이번 기사를 열심히 못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현영 언니 고맙고 수고했어!!!



김예림

엄청 정신없게 또 여름 호 마감이 다가왔네요. 눈 감았다 뜨면 마감이고 마감이고, 마감이 끝이 없어요ㅋㅋㅋㅋ 이번엔 간티크 역사 알아본다고 저한테는 조상님인 05학번 동훈 오빠를 전화로 인터뷰한 것도 재밌었어요! 학교에서만 기사 쓰니까 심심했어요. ㅎㅎ 회식 가고 싶다~~



손채은

음! 이번에 저는 무빙 글을 썼는데요. 진짜 폭폭 짜 죽을 뻔했어요. 아, 이번 여름 호 다들 너무 열심히 했고요ㅠㅠㅠㅠ 우리 진짜 회식 안 가나... 가고 싶다... 어쨌든!!! 모두들 수고했어요. 기자 후기 쓰는데 옆에서 강아지 쿠키가 차근덕거리네요. 그럼, 전 놀아 주러 뽕하겠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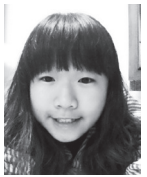
장우정

이번 호는 별 탈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늘 담당 쌤께 이런 식으로 할 거냐는 꾸중을 듣지만 언제나 소식지는 나오네요. ㅋㅋ 이번에도 다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호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너무 식상하니까, 다음 호는 더 대단하게 해 봐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가원

음... 얼렁뚱땅하다 보니 이번 호도 금방 지나가 버렸네요. 단신 그리면서 계속 투덜거렸지만 끝나고 나니까 뭔가 아쉽고 허무한 기분? ㅎㅎ
이제부터 단신 그럴 때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ㅠㅠ 만날 미뤘더니 마감 며칠 전에는 힘이 쭉쭉 빠져 흑. 이번 호도 다들 수고했구요^^ 다음 호도 열심히 해 봐용ㅋㅋㅋ파이팅!!♥♥



한 별

이번 여름 호에선 '간디인 톡톡'을 맡아서 이제까지 해 온 소식지 중에서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날로 먹는다는 소리도 들었지만ㅋㅋㅋㅋ 다른 기자들보다 편하게 한 만큼 필리핀 다녀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디인 톡톡'에 글 써 준 수정 언니랑 그림과 글을 준 익준이 고마워요. 필리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일상다반사도 너무 수고했어용. ♥6월 18일 가진동 생일 축하♥



조하한

나날이 발전해 가는 일상다반사가 멋져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가을 호에서 만나요. ㅎ



최소은

다행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잘 나온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장도 정환 쌤도 기자들도 사진 기자들도 감사해요! 4학년 필리핀 잘 다녀와~



유현영

편집장 말고 처음 내 보는 소식지라 걱정 많이 했는데, 마감 기간이 여유롭지 못했는데도 생각보다(?) 잘 지켜 준 기자님들 고맙습니다.ㅠ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가 '일상다반사' 소속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ㅋㅋ 4학년 하한이랑 별이 필리핀 준비하면서도 기사 열심히 써 주어서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하겠어요, 빠샤!



홍지인

입교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났네요. 어후... 이번에도 어김없이 마감에 늦었습니다. 현영아 미안해...♥ 다짜고짜 사진 부탁했는데도 군말 없이 사진 맡아 준 우정이 고마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썼어요! 재밌게 봐 주세요. :) 다른 기자들도 수고 많았어~ 🍷

☆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중·고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삶을 나눌 선생님을 모십니다.

교육 공동체를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초빙 부문 : 교사 1명
- 분야 : 국어
- 서류 접수 : 충원시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 수업 계획서 / 경력 증명서(해당자)
 - 자기 소개서 :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 지원 동기, 대안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 철학 등
 - 경력 증명서 : 대안교육 현장의 경험과 이해가 있으신 분
 - 모집 분야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 수업 계획서 :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한 한 학기 수업 계획서



* 간디학교 수업은 보통 90분이며, 대상과 내용에 따라 시간 조절도 가능합니다.

중등과 고등이 있으므로 대상 학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간디학교의 수업은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나 분야와의 통합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생활을 하면서 학교 공동체를 넘어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활동을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급여와 교사 복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류 접수(이메일): stonechr@hanmail.net(교사 대표 오피스)

문의: 043) 653-5791~2 / www.gandhischool.org / 010-2526-9819

*1차 서류 심사 후 면담 일정은 개인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천간디학교지 계간《간디IN》 2013년 여름 호(통권 27호) / 발행인 손진근 / 발행 제천간디학교 / 편집장 허한 / 담당 교사 김정환 / 기자(학내선) 홍기인, 우현영, 최소은, 허한, 한별, 김예린, 손채은, 이가원, 장우경, 김민석, 김은수, 안효원, 이예슬, 이예슬 / 편집 및 제작 세민화체 / 발행일 2013년 7월 30일 /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고리 92-3(우편번호 390-852) 전화 (043)643-5971 ~ 3 팩스 (043)653-5798 / http://gandhischool.org





광대

김고운(4학년)

겨울방학 때 '팁 버튼 전'에 다녀와서 영감을 받고 그린 그림이다.
광대는 웃기지만 슬픈 존재이다. 분장으로 자신을 숨기고
속이는...

정말 밝지만 고독한...

내가 광대는 아니지만 '나와 비슷한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고,
리쌍의 <광대>는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
같았다.

이 그림 속의 광대는 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MS와 계좌 입금 등으로 후원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제천간디학교 장학금, 이동 학습비와 특별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 지역 아동 단체 운영비로 잘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인의 뜻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 439명 866건 12,400,000원 / 입금 후원 4명 8건 160,000원

(주)두인기전 강경선 강나영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순자 강승구 강신현 강영상 강용중 강유태 강지혜 강창석 고수원 고지철 고희라 공지환 공치성 광영현 광용호 구경란 구순자 구자민 권숙영 권순호 권영숙 권지현 권호정 금상호 길주연 김갑유 김경민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태 김구한 김극준 김금선 김남수 김남식 김대석 김도연 김란경 김만우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혜 김명희 김명희2 김문석 김문선 김문혁 김문환 김미옥 김미정 김백영 김삼부 김상덕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태 김송새봄 김수진 김양진 김영경 김영규 김영란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한 김영희 김옥주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유태 김윤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숙2 김은영 김은정 김재권 김정라 김정미 김정일 김종성 김종우 김중원 김중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2 김진우 김진태 김창석 김태홍 김평호 김학규 김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진 김혜림 김혜숙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2 김호연 김희교 김희균 남용기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노선영 노윤희 노희석 덕산LG주유소 도승연 라기호 라성호 류명옥 마미경 마석훈 명보산업개발 문성룡 문신호 문현주 문효선 민병선 박경현 박경호 박기석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나 박봉규 박성수 박성열 박영문김숙정 박영선 박영자 박영희 박영규 박인옥 박장식 박정림 박종수 박진수 박창순 박태영 박현준 박호성 박환홍 박홍식 배승만 배영수 배장산 배필늘 백동민 백동훈 백명기 백미숙 변기영 변소영 빈종일 서진섭 서홍원 선미식품 성정미 성호종합주방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영미 손정현 손주영 손진근 송윤순 송지은 신동운 신부순 신영희 신윤숙 신주영 신현덕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정환 안주연 안진희 안춘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서희 양수연 양자영 양정숙 양화숙 양후남 어투스산(주) 염계선 오강순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익문 오지혜 오혜영 오호균 우기백 우성섭 우성호 원정석 원현구 유경오 유성희 유수진 유연열 유운모 유원유통(농산) 유일상 유준하 유준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영 유택규 유한목 유향옥 유현영 윤도희 윤민호 윤보영 윤숙경 윤양수 윤은주 윤한식 윤호선 은종복 이강욱 이강인 이강훈 이경란 이경숙 이광일 이근행 이기하 이낙원 이명조 이명희 이미경 이미경2 이민주 이보완 이상복 이상현 이상훈 이석윤 이선애 이선재 이성록 이성호 이소안 이수미 이수경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2 이순화 이슬비 이승민 이승섭 이승연 이승욱 이승환 이양한 이에준 이오순 이요훈 이윤수 이윤순 이은신 이은희 이재성 이재웅 이정석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태 이정환 이종주 이종태 이종현 이주엽 이주는 이준용 이진석 이진우 이철희 이한진 이현주 이혜림 이호창 이흥구 이화숙 임남규 임반석 임병포 임성희 임영배 임영빈 임은숙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성윤 장영순 장인옥 장일경 장진숙 장현섭 장희숙 전미영 손현석 전병민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완기 전종철 전주란 정경훈 정다운 정명숙 정문자 정문희 정병희 정상인 정석현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종미 정지은 정태균 정한경 정희정 조경선 조경애 조경희 조규석 조동일 조미숙 조봉석 조상희 조수경 조숙자 조영도 조은아 조주환 조찬규 조창아 조철연 지연철 진상정 진성기 진은주 진정란 차영순 채상병 채서운 채신자 천희진 최경우 최도연 최문택 최상윤 최선자 최선주 최선희 최숙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용 최인화 최재민 최재화 최재현 최종현 최진웅 최홍석 허승렬 허영아 하태광 한광택 한상철 한용택 한현 허미경 허성희 허영순 허인영 형제수산 홍금자 홍기봉 홍수연 홍원희 홍창식 홍현일 황국덕 황들남 황명숙 황선태 황소연 황인명 황인숙

* 김명철(03 김다은) 님이 한방 감기약을 항시 공급하고 계십니다.

* 박정희(02 김보경) 오이 8상자, 토마토 2상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 신영희(01 오창민 03 오은교) 님 참쌀현미 1가마, 백미 1가마, 대동제 기념 모시떡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 김영경(13 김창수) 님이 직접 키우신 과일을 틈틈이 보내 주고 계십니다.

* 이 밖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누락되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변 분들에게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회원 분들도 학교로 연락 주시면 추가 등록 없이 증액이 가능합니다.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내용 변경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653-5791/ 고희라 010-2620-8891

